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변인에 관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서 민 정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변인에 관한 연구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서 민 정

인 준 서

서민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잘 변별할 수 있는 판별변인을 규명하고 그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비행 청소년의 표집은 지방에 위치한 2개 소년원 학교의 학생들이었으며, 일반 청소년의 표집은 서울 및 지방에 위치한 2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총 580부 중 부실응답 설문을 제외한 총 514명의 응답이 조사에 활용되었으며 그 중, 비행청소년은 209명, 일반청소년은 305명이다. 자료 분석은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사, 다변량 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행동에서 비행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둘째, 부모 애착에서 비행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셋째, 정서적 학대에서 비행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비행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나타냈다.

다섯째, 자기개념과 타인개념에서 비행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개념과 타인개념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섯째, 접촉경계 혼란 유형 총점에서 비행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사, 투사, 연결성의 세 하위요인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곱째,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효과적으로 판별해 줄 수 있는 변인은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임상 및 상담현장에서 청소년 비행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어느 부분에 먼저 개입하여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데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 비행 청소년, 가정의 심리적 환경, 성격특성, 심리적 특성

목 차

논문 개요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선행 연구	5
1. 가정환경 변인	5
1) 부모 양육행동	6
2) 부모 애착	7
3) 정서적 학대	8
2. 청소년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변인	9
1) 성격장애 성향	10
2)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12
3) 접촉경계 혼란	13
III. 연구문제 및 가설	15
IV. 이론적 배경	16
1. 청소년 비행	16
1) 비행이론	16
2) 청소년 비행의 정의	21
2. 부모양육행동	23
3. 부모 애착	26
4. 정서적 학대	28

5. 경계선 성격장애	32
6.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34
7. 접촉경계 혼란	37
1) 내사	38
2) 투사	38
3) 융합	38
4) 반전	39
5) 자의식	40
6) 편향	40
7) 연결성	41
V. 연구방법	42
1. 연구대상	42
2. 측정도구	42
3. 자료 분석	46
VI. 연구결과	47
논 의	6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표 1 > 인구통계학적 특성	48
< 표 2 > 비행 청소년집단 특성	50
< 표 3 > 집단 간 부모 양육행동 차이 분석 결과	52
< 표 4 > 집단 간 부모 애착 차이 분석 결과	54
< 표 5 > 집단 간 정서적 학대 차이 분석 결과	55
< 표 6 > 집단 간 경계선 성격장애 차이 분석 결과	56
< 표 7 > 집단 간 자기개념 차이 분석 결과	57
< 표 8 > 집단 간 타인개념 차이 분석 결과	58
< 표 9 > 집단 간 접촉경계 혼란 유형 차이 분석 결과	59
< 표 10 > 부모 양육행동, 부모애착,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개 념, 타인개념, 접촉경계 혼란 유형에 의한 판별 분석 결과	60
< 표 11 > 판별분석 분류 결과	6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상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과도기로 신체적, 정신적 및 실존적 의미에서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긴장과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 삶의 전 생애 중 가장 많은 위험과 기회, 좌절과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하다(Erikson, 1968). 이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 외로움, 혼돈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어 이를 탈출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비행이나 기타 다양한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연령비행곡선을 보면 범죄율은 12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17세경에 절정을 이루어 19세까지 지속되다가 성인초기에 급격히 하락하여 이후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범죄율은 청소년기에 최고조로 높아져,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더 난폭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orum, 2000; Gullone et al., 2000; Zuckerman, 1994; 이석형, 2006).

또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의 절대적인 수는 1997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인구가 80년대 초부터 점차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 대비별 소년범은 줄어든다고 보기 힘들다. 심각한 것은 소년범의 재범율로 대검찰청(2006)에 따르면 2004년에는 소년범 중 재범률이 3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범죄의 내용도 과거와는 달리 흉악화, 조직화, 지능화, 집단화, 상습화되었으며 또한, 고학력화, 저연령화, 학생 범죄의 증가와 친부모가 있는 정상가정의 청소년에 의한 범법행위가 증가하는 등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신혜섭, 2005; 이경상 외, 2005; 정주향, 1993). 최근 이러한 청소년

비행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정부, 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기존의 이론, 연구에 대한 재검토와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가정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 일탈행동이나 비행에 관한 연구는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학적 연구는 청소년 일탈행동이나 비행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청소년 일탈이나 비행은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환경이라는 거시적인 접근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비행의 원인을 충분히 밝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안권순, 2006; 이창수, 1997).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신뢰롭고도 타당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환경은 인간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발달에 기초가 되며 많은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환경이다(이창수, 1997). 이와 같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청소년 비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적 환경인 가정환경과 청소년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을 논하고 있다(김현수 외, 1992, 1997; 남영옥, 2001; 엄명용, 2000; 한상우 외, 1998).

이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정의 물리적 및 심리적 환경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김윤희, 2007; 석말숙, 1998; 오명지, 2006; 이혜원, 1992; 조현진 외, 1991; 최형복, 2003; 한중국, 1992) 또는 개인의 성격유형, 성격장애 성향, 성격발달에서의 결함,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충동성으로 나타나는 정서 조절결함, 공격성 등의 개인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연구(곽금주 외, 1993; 김인자, 1991; 김현수 외, 1992, 1997; 남영옥, 2001; 박영신 외, 2006; 심혜숙, 1999; 원호택, 1990; 유홍준 외, 1999; 이수정 외, 2006; 차타순, 2001;

Erikson, 1983; Eysenck, 1975; Mitchel, 1968; Siegal et al., 2006) 등과 같이 청소년 비행은 비교적 단일 요인에 한정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은 가정이나 개인 중 어느 한 부분만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과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그들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일은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주로 범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집단 또는 비행 성향의 일반 학생 청소년집단 중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변별하는 명확한 변인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 요인의 영향과 단일 집단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그 연구의 실용적 가치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 비행의 원인 및 관련 변인들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을 뿐, 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며 비행 청소년의 효율적·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을 위해 어느 부분에 먼저 개입하여야 하는지를 밝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환경과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에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적절하게 고려할 것이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가정환경은 물리적 환경보다 심리적 환경이 더욱 많은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정서적 학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격관련 변인으로는 비행 청소년의 성격특징과 일치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기개념, 타인개념, 접촉경계 혼란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변인들을 사용하여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함으로써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의 성

격 및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며, 또한 비행 청소년 집단을 가장 잘 변별해주는 판별 변인과 그 변인의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한다.

II. 선행 연구

1. 가정환경 변인

인간에게 있어 가정은 제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사회단위로서 혈연에 의하여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인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또 문제 행동 발생에 있어서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조사연구 되어 왔다. 즉 인간은 가정 내의 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게 되며 사물에 대한 태도, 습관, 그리고 가치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성격까지도 가정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다. 가정이 붕괴되어 가족 간의 화목이나 예상되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범죄나 비행에 빠져들 수 있다(송병호, 2005; 이상현, 2004). 따라서 가정환경은 청소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의 결혼 등의 물리적 환경과 부모-자녀 간 심리적 거리, 양육 태도, 의사소통 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강석기·변보기, 2002).

인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정의 심리적 환경 조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신지원, 1997).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란 ‘작용하는 환경’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의사소통, 가정의 분위기 등과 같은 가족과 자녀의 상호작용의 환경을 말한다(오명지, 2006). 최근의 연구들도 가정의 외적 요소인 물리적 기능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 영향을 주기 보다는 물리적 기능이 가정의 내적 요소인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준 뒤 다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김준호, 1995; 엄명용, 2000; 이은희 외, 2004; Conger et al., 1994; Mcloyd·Wilson, 1991). 이러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요인이 청소년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

러 가정환경요인 중 에서도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요인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옥정 외, 2001; Rey·Plapp, 1990). 비행 원인과 관련된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요인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는 부모의 양육행동 · 부모와의 애착· 정서적 학대와 같은 세 측면이다(김상선 외, 2007; 박영신 외, 2004).

1) 부모 양육행동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초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 초기경험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발달과 성격 형성, 태도, 가치관 그리고 행동 양식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며, 자녀의 비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민정, 1997; 남영옥, 1998,2001; 조선정, 2000; 한상우 외, 1998; Bornstein · O'Neill, 1992; Mahler et al., 1975; Masterson, 1989).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비행의 형성요인이라는 가설은 그간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진 바 있다.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 1988년부터 1998년 까지 비행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가정요인 중 구조적 결손 그 자체보다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더욱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밖에 부모의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도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Ray et al., 1990). 또한 적대적, 처벌적, 거부적, 과잉 통제적이며, 수치감을 조장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공격성의 발달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erris et al, 1994). 최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신체적 학대 및 방치는 우울증 뿐 아니라 품행장애 및 비행과 공격성에 대한 결정적인 위험인자로 밝혀졌다(Cicchetti·Toch, 1995). 반면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나 감독은 품행장애와 비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Wasserman et al., 1996).

한편 비행 청소년 부모들은 일반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김현수 외, 1997), 부모 모두의 돌봄이 적고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민 외, 1997). 특히 모의 양육태도보다 부의 과잉보호와 정신병리가 자녀의 비행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진혜경 외, 1998; 한상우 외, 1998). 이러한 비행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일관성 여부, 혹은 돌봄과 과잉보호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 단순한 평가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양육태도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 양육행동 질문지를 사용하여 애정, 합리적 설명, 신체적 학대 및 방치, 과잉관섭, 과잉기대, 감독, 비밀관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양육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2) 부모 애착

애착 장애가 내재되어 있으면 향후 심리 발달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에 의해 애착과 정신병리, 애착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아동기 부모에 대한 애착과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 경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성호, 2005; 부선희, 1999). 또한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이경님, 2004), 부모와의 애착은 비행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된다(김효수, 2009; 백혜정·황혜정, 2005). 따라서 부모에 대한 높은 애착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지지와 안정감을 갖게 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가족 환경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착유형과 정신병리와의 연관성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 중 몰입형은 내재화 증상과 관련되는 반면, 무시형은 비행과 관

런된 외현화 증상과 연관된다고 한다(Rosenstein et al., 1996).

이처럼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부모애착 연구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 애착관계는 영아기·아동기와 달리 표면적인 애착행동이 감소하며, 적극적이고 목적적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추상화 능력이 생기면서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기초를 확고하게 갖게 되고 부모와의 목표-수정적 협력관계를 더 세련되게 다룰 수 있게 된다(Allen et al., 1994; Bowlby, 1973; Main et al., 1984). 따라서 기존의 아동기 애착관계 연구는 청소년의 현재 애착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현재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정서적 학대

아동기 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와 같이 그 피해가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학대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정서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거나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는 개념상 정의가 모호하고 양적 측정이 어려워 연구가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Kaplan et al., 1999). 보건복지부의 아동 학대 현황 보고서(2008)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신체 및 정서방임이 39.8%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23.8%, 정서학대가 29.7%로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장기 학대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적,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단기적, 장기적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경험적 연구들은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장기적으로 심리적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지지하

고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정신병리를 가진 청소년들의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분석에서 정서적 학대 및 방치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울 증 뿐 아니라 비행과 공격성에 대한 결정적인 위험인자로 밝혀졌다(Cicchetti et al., 1992). 또한 아동기 정서학대의 영향은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애착관계, 외현화 행동 및 공격성, 낮은 자아개념 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보고된다(정솔이, 2006). 정서학대 등의 외상경험이 자기, 타인, 외부 세계에 대한 내적 표상을 왜곡시키고, 부모 등 중요한 타인에 의한 반복적 외상과 거절 경험은 자신을 결함 있고 무능하고 불완전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인에게 무기력감을 주고 결국 자기 인식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 비행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정희, 2003; 윤진영, 2003; 장사경, 2008; 조주연, 2004).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 정서적 학대 및 방치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청소년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변인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은 인간생활의 대부분에 관여하는 개인의 가장 두드러진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처럼 독특하고 일관적인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은 인간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비행이라는 행동특성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비행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정의 병리적인 현상이 그들의 가치관의 미완성에 기인하는바 적지 않으나, 청소년 자신에게 내재한 원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이수정, 2006). 결국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 외에 개인적인 요인 또한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은 성격장애 성향,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접촉경계 혼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성격장애 성향

과거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의 성격연구는 성격의 구조가 소수의 ‘유형’들에 의해 지배되고, 그 ‘유형’들은 행동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성격차원이라고 주장한 H. Eysenck(1974)을 시초로 성격 유형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김정택 외, 1994; 심혜숙 외, 1998; 염태호 외, 1991; 이인혜 외, 1987, 1991; Eysenck, 1974; Foggit, 1974; Furnham et al., 1991). 그러나 최근에는 비행과 관련된 성격특성들을 근거로 하여 성격장애 또는 성격장애 성향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주로 논의 되는 것은 반사회적 성격(곽선영, 2005; 서지현, 2005; 양종국 외, 2002)과 경계선 성격(김동민, 2003; 남영옥, 2001; 박지선, 2009)이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반사회적 성격의 연구들은 반사회적 성격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비행의 문제를 성인기까지 이어가게 하며, 생활 적응에 문제를 갖게 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은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 행동을 하면서도 외적으로 불안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면서도 어떤 긴장, 회의, 후회도 느끼지 않는 등 도덕적 양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독특한 성격특징을 가지며 자신의 증상을 인식할 수 없고 불편감도 거의 느끼지 못하므로 치료의 개입이 상당히 어렵다(김중술 외, 2003).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비행 청소년에게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여 비행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치료의 개입이 어려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제외하고 경계선 성격장애 변인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갖는 비행 청소년들은 죄의식, 공감, 사랑 또는 사회적

수용과 같은 사회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나 환경 및 개인적 특성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반사회적 행동양식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은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상담 및 심리치료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김동민 외, 2005).

비행 청소년의 특성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욕구좌절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며 자아 정체감이 불안정해 혼란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이다. 대인관계 또한 불안정하여 인간관계에서 매우 의존적이고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돌발적으로 적개심과 분노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성격 특성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성격 특성과 일치한다(남영옥, 2001; 박지선, 2008; 정주향, 1993).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청소년은 정체성의 혼란, 충동조절과 좌절내성의 부족, 정서적 불안정과 역기능적 대인관계를 가지며(남영옥, 2001; 박지선, 2008) 이러한 특성이 비행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Rapopot, J. L·D. R. Ismond, 1990; Siever, L.J·K. Davis, 1991; Thomsen et al., 1996; Vijay et al., 2006).

최근 청소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청소년의 가출행동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들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와 같은 심각한 심리 정서적, 성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특성이 가출행동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중환, 1993; 박성자, 1999; 임종렬 외, 1996).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중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관계’의 성향이 있는 청소년이 가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남영옥, 2001).

범죄유무에 따라 비행 청소년집단과 일반 청소년집단을 구분하여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고한 연구도 시행되었다. 그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비행 청소년의 비율이 일반 청소년의 비율의 두 배가 넘게

나타나 청소년 비행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고,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점수가 클수록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남영옥, 2001). 따라서 비행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장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비행의 이해와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2)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자기개념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집약한 기억체계로서 개인의 성격, 대인관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개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증진의 대안적인 행동양식으로서 비행행동에 보다 쉽게 개입하게 된다는 추론이 있어왔으며(Kaplan, 1980), 여러 연구들이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Kaplan et al., 1984; Rosenberg, 1979).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기개념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행 청소년이 보다 더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고(심응철 외, 1986;),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관련됨을 지적하였다(구창모, 1991). 특히 자기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범죄의 유혹이나 압력, 일탈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자아가 부정적이고 안정성과 항상성이 부족할 경우 불안정한 자기개념에서 비롯된 불안감을 비행행위를 통해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김유자 외, 2000).

반면 비행 청소년과 관련된 타인개념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타인개념도 자기개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격 및 대인관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여겨진다(권석만, 2002).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가 핵심적인 영역이며 따라서 개인이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이러한 관계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떤 내면적 개념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개인의 심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관건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Cashdan, 1988; Kernberg, 1976; Klein, 19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과 타인개념을 모두 알아보기로 한다.

3) 접촉경계 혼란

비행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연구는 주로 우울, 불안, 강박성향과의 연관성 등, 정신병리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왔으며 이들 요인들과 청소년 비행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김민동, 2002; 박지도 외 2001; 서정석 외, 1999; 이상현, 1996; 장동산 외, 1985; 한상우 외, 1997; Novotny et al, 1974). 게슈탈트 치료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정신병리 현상은 항상 접촉경계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다. 접촉경계 혼란으로 인해 접촉이 차단되어 신체감각자체가 느껴지지 않게 되면 신체의 고통이나 불편한 상태 등이 무시되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외부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지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며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김정규, 1995).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촉경계 혼란과 우울간의 관계 연구에서도 접촉경계 혼란의 하위유형 중 투사와 감각차단이 우울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바 있다(김주희 외, 2008). 또한 불안 및 강박성향은 개체가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못하고 미래의 위협과 동일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접촉경계 혼란이 이러한 위협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체가 자신의 접촉경계 혼란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행동을 멈추거나 혹은 대안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의 위협을 파국적으로 동일시하는 대신 자신의 현재 경험과 동일시하여 온전히 현재에 머무름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김정규, 2003).

접촉경계 혼란은 위에서 언급된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연구에서 접촉경계 혼란 유형 중 투사, 반전, 감각차단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그리고 투사, 반전, 편향이 청소년의 내재

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투사와 편향의 접촉경계 혼란이 매개역할을 함을 나타내었다(한연희, 2009).

선행연구 및 게슈탈트 심리치료이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행 청소년이 갖는 우울, 불안, 강박성향 등의 정신병리, 문제행동 등은 접촉경계 혼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촉경계 혼란 유형을 측정하여 비행 청소년의 포괄적인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가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에서 일반 청소년집단과 비행 청소년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1-1 비행 청소년집단과 일반 청소년집단에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인 부모 양육행동, 부모 애착, 정서적 학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비행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비행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심리적 특성변인인 자기개념, 타인개념, 접촉경계 혼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가정의 심리적 환경(부모 양육태도, 부모 애착, 정서적 학대)과 청소년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자기개념, 타인개념, 접촉경계 혼란 유형)중 비행 청소년을 가장 잘 변별하는 판별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IV.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

1) 비행이론

비행이나 범죄는 여러 학문에서 연구되어왔고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비행이론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여러 이론들은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을 유전 및 생물학적 결합이나 심리적 장애로 설명하려는 개인적 측면과 가정·학교·지역사회·인구·문화 등의 생태적·물리적 환경으로써 설명하려는 환경적 측면의 두 가지로 대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초기 비행에 대한 연구에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여러 생물학적 접근의 연구에서 유전이나 체질 등이 비행이나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심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이론들이 비행 및 범죄의 연구에 크게 기여해 왔다(유혜경, 1986). 비행의 사회학적 접근은 비행에 영향을 주는 사회학적 과정과 조건들을 밝혀 봄으로써 비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심리학적 접근은 비행을 나타내는 개인의 특성, 동기, 사회적 관계에서의 심리적 변화 및 경험 등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서 비행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심리학적 이론을 살펴보겠다.

(1) 정신지체이론(mental retardation theory)

정신지체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그 원인은 낮은 지능으로 인해 법규를 잘못 이해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 관하여 다소의 문제제기가 있다.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1) 지능과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범죄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2) 범법행위를 하고 체포된 사람의 수가 범법행위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범법행위를 하고서도 체포되느냐, 안되느냐는 범인의 지능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심응철, 1998 재인용). 한편, 비행 청소년들 중 같은 또래의 일반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통찰력이나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증거도 나타난 바 있다(이창수, 1998).

(2) 성격이론(personality theory)

특수한 성격이 범죄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기 이전부터 이미 대담하고, 싸움에 말려들기 쉬우며, 쉽게 성을 내고, 부모나 선생님에게 반항적인 성격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견해이다(심응철, 1998 재인용).

비행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욕구좌절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며, 자아 정체감이 불안정해 빈번하게 혼란을 경험하는 성격특징을 나타낸다. 대인관계 또한 불안정하여 인간관계에서 매우 의존적이고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돌발적으로 적개심과 분노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성격특징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성격특징과 일치함이 보고되고 있다(남영옥, 2001; 박지선, 2008; 정주향, 1993). DSM-IV-TR(APA, 2000)에 의하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자아상·정동에서의 불안정, 심한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비행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Rapopot, J. L·D. R. Ismond, 1990; Siever, L.J·K. Davis, 1991; Thomsen et al., 1996; Vijay et al., 2006).

한편, A. Adler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을 때, 사람들은 이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징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인정을 받고 싶다는 충동과 열등감과 결함으로부터 일어나는 콤플렉스는 이를 보상하는 행동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비행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범죄자들은 보통 사회적 흥미가 부족하고 그들의 어린 시절을 대부분 열등감 속에서 지냈다고 보았으며, 열등감의 원인으로서는 신체적 결함 및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양육을 들었다.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아동을 응석받이로 키웠거나, 아동 자신이 부모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느끼면서 자라게 했을 경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한 방향으로 학교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즉, 범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의존적 생활양식을 갖고 있고, 이들은 어려서 응석받이로 성장하여서 의존적이며, 이 때문에 일을 처리할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을 보상하려고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아동들은 자신이 거부당하고 부모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느낄 때 부모의 애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강하나 바람직한 행동으로는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벼운 절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점차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3) 정신병적 이론(psychotic theory)

이는 성격이론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특수한 성격 장애보다 그 증상

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정신질환자는 본능적인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이 약하고 비협조적이며 사회적 요구에 쉽게 부응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부분의 범죄는 미리 계획된 흔적이 없고 행위자체가 충동적·순간적으로 행해지며 목적이 분명치 않은 특징이 있으며, 현실과의 접촉결여로 환상이나 환각에 의해서 비행은 저지르기도 한다(심응철, 1989 재인용).

(4) 정신분석학적 이론(psychanalytical theory)

정신분석학에서는 성격의 3구조, 즉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가 초기 어린 시절에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만일 성장기에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아와 초자아가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하면 충동적 욕구를 억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범죄자들이 어렸을 때의 죄책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특정한 개인이 어려서 행한 금지된 행동에 대한 속죄를 받기 위해서 범행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Freud, 1896; 심응철, 1989 재인용).

(5)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비행도 다른 행동습득과 마찬가지로 학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A. Bandura에 의하면 괴로운 상황에서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반응하게끔 학습된 사람들은 보다 더 공격을 촉발시킨다고 한다. 인간의 공격행동은 욕구좌절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개인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욕구충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 비행은 모델링(modeling)을 통하여 행동을 학습하고 있다. 또한 학습은 동기나 정서의 영향을 받는데, 특정 범죄자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높은 동기수준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나중에 그와 유사한 조건일 때 동일한 범죄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Albert bandura, 1963; 심응철, 1989 재인용).

(6) 자아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 지각태도로써, 개인의 자아개념은 그 개인이 처한 환경의 영향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과정으로 형성되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성격특성이다. 그러므로 인간행동은 그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자존심과 자긍심이 높으며 이에 따라 안정된 성격과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소유하게 되어 대인 관계에서도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악하다고 생각하여 이런 자아체제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스스로 자신을 확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며 불안한 성격과 심리상태에 놓이게 된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부정적 행동의 원인이 된다. 즉 부정적 자아개념은 정신분열증이나 성격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적응이 소외와 무규범적 자아를 촉발시킴으로써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Kaplan, 1980; 심응철, 1989 재인용).

2) 청소년 비행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3가지 유형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1) 사회 문화 속에 내재된 가치 규범에 의해서 전적으로 수용 될 수 있거나 적어도 특정상황에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 질서와 2) 독특하거나 특별한 행동이긴 하지만 무질서를 초래하지는 않는 행동, 그리고 3) 일탈 정도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혐오감, 분노 혹은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 있다. 여기에서 비행이란 세 번째 유형의 일탈과 관련되어 있다.

비행의 학술적 정의는 연구자들 마다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Delinquency)이란 법률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했거나 혹은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어지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비행이라 불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가정이탈, 불량 교우를 사귀는 일, 상습적인 타락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조광환, 1997).

비행은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고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서 주로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되고 성인인 경우에는 범죄라는 말을 사용한다(김경식·이현철, 2008).

비행을 범죄행동과 문제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행동은 성인이 범해도 죄가 되는 강간, 강도, 폭행 등의 강력범죄와 절도, 주거침입절도 등과 같은 재산범죄들을 말하고,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등 미성년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들로서 미래에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행위를 문제행동으로 말하고 있다(노성호, 2005).

이와 같이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 비행이 다르게 규정되므로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비행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비행 청소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비행 청소년 혹은 청소년 비행이라는 말은 본래 법률적 용어이다. 비행이란 말의 유래는 1899년 미국 시카고 시의 소년재판소 설치법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방임된 소년 또는 비행의 경험이 있는 소년의 처우 및 감독을 규정한 법률”에서 처음 사용된 후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법률적 개념이 되고 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행이란 말은 청소년에게만 쓰는 용어이고 성인인 경우 범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보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의 상태”를 말한다. 소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서 의하면 소년 비행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2) 촉법소년이라 함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행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우범소년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반면 청소년 비행의 해결 및 예방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법행위와 함께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비행으로 규정한다(정주향, 1993; Griffin, B. S • Griffin, D. T.,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 정의 및 청소년 관련분야의 정의를 모두 고려하여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2. 부모양육행동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적 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최초로 교육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이 부모가 되므로 이후 자녀의 관계형성에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서 양육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에도 다양한 영역과 관련하여 꾸준히 연구되어왔고 최근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모양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육행동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개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으로 정의된다(곽소현, 2005; 허묘연, 2000).

용어에 대해서도 양육태도, 양육행동 등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부모의 태도에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 반영되기 때문에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이 유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추상적인 개념의 양육태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박성연 외, 1990)).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접근으로는 차원론적 접근과 유형론적 접근이 있다. 차원론적 접근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Symonds(1949)는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으로 구분한 후, 수용·거부·지배·복종 각각의 하위유형을 간섭형·불안형, 소극적·적극적 거부형, 기대·엄격형, 맹종형·익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정신분석학에 힘입어 임상사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한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하여 어머니의 행동이 조직될 수 있는 두 개의 양극

적인 차원, 즉 애정-적대감 대 자율-통제를 제안하는 가설적인 원형모형을 제시하였다. 원형모형에 따르면 애정-적대감 차원은 부모와 아동의 정서적 관계를 다루는 반면, 자율성-통제 차원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 부과하는 통제와 제한을 다루고 있다.

유형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인 Banumrind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독재적·권위적·허용적으로 유형화 하였다(김남선 외, 2001a). Maccoby와 Martin은 Schaefer가 제시한 2개 차원과 Baumrind가 제시한 3가지 유형을 종합하여 양육태도를 구분하였고, 4가지 유형으로 권위적·독재적·허용적·방임적유형을 제시하였다(김남선 외, 2001b).

국내에서는 박성연(1989)의 연구에서 양육행동을 애정-적대, 통제-허용, 과보호-자율, 일관성 있는 규제-일관성 없는 규제, 적극적 참여-비적극적 참여, 합리적 지도-비합리적 지도, 성취-비성취의 7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박영애(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나에게, 혹은 내가 부모에게 지각되는 양육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애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행동과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데 김성연(1981)은 자녀의 정의적인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들이 보는 양육행동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라고 보고하였고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자녀의 내적 통제성을 예언하는 것으로 부모가 지각한 양육행동 보다는 자녀 쪽에서 지각한 양육행동이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Medinnus(1965)는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다르게 지각되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육행동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실제 행해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력보다는 자녀 자신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은 자신의 심리 상태나 주어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관에 의해 판단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청소년의 지각을 중심으로 부모 양육행동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유형론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각각 측정한 허묘연(2004)의 부모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위영역은 ① 감독 ② 합리적 설명 ③ 비밀관성 ④ 과잉기대 ⑤ 과잉간섭 ⑥ 학대 ⑦ 방치 ⑧ 애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②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되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며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③ 비밀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된다.

④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⑤ 과잉간섭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⑥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상이라는 결과가 남는 양육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⑦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⑧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하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 된다.

3. 부모 애착

애착이란 영아와 어머니간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써,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이며,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려는 행동이라고 정의된다(Bowlby, 1969). 즉, 애착 행동은 유아가 안정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양육자에게 가까이 있고자 하는 행동으로 항상성을 갖는다(Bowlby, 1973). 애착은 개체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섭식 등의 생물학적 충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소·울기·빨기·따라가기 등의 생득적인 반응을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 최근에 애착 연구가들은 애착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을 유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을 느끼는 것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좀 더 확장 시켜서 제안하고 있다.

Ainworth와 Bell(1970)은 애착이란 사람이 자신과 특정한 개체 사이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이고 이러한 유대관계는 시간이나 공간을 넘어 지속된다고 하였다. 애착이 존재한다는 것은 애착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Ainworth(1978) 등은 기존에 애착에 대해 모호하게 혼용되어 오던 애착과 애착 행동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애착은 유아와 어머니간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지속적인 관계성을 일컫는다고 하였으며, 애착 행동은 유아가 형성한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하는 행동이라고 구분하였다. 즉, 울음·미소·소리내기 등의 신호행동이나 애착 대상을 쳐다보기·따라가기·기어오르기·껴안기·매달리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동 등을 말한다. 또 이러한 애착 행동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방식에서 심리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기도 하며, 상황적 요인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애착 이론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애착 행동에 대해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 하였는가, 즉 유아와 양육자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였는가에 따라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타인이 반응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표상, 즉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된다. 이 내적 작동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개인의 애착 양식이 달라진다(한수정 외, 2002). 내적 작동 모델은 아동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환경과 접하며, 앞으로의 발달 단계에서 맞이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Bowlby, 1980).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양육자에 대해 언제나 다가갈 수 있고 반응적이며 도와주는 존재라는 내적 작동 모델을 갖는다.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내적 작동 모델을 갖게 된다. 반면 감정적 욕구가 끊임없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충족되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세상은 위안 받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하게 된다. 또한 발달상의 여러 도전들을 자신 있게 맞이하지 못하고 여러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한수정 외, 2002; Bowlby, 1973).

애착에 대한 전 생애 발달(life-span development)접근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아동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하며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경우 청년기에 부적응적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안정기저(secyre base)’로 남아 있으며 위협을 느끼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애착 체계가 활성화 된다(Bowlby, 1973). 청소년기 애착관계는 영아기나 아동기와 달리 표면적인 애착행동이 감소하며, 적극적이고 목적적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형식적 조작기로 접어들며 추상화 능력이 생기면서 애착 관계에 대한 내적 기초를 확고하게 갖게 되고, 부모와 목표-수정적 협력관계를 더 세련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청소년기 애착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아동기의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애착 이

론에 근거한 자기 보고식 애착척도가 개발되고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Kenny, 1987).

청소년기 부모와의 친밀한 애착 감정은 언제나 필요로 할 때 부모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기능적인 면으로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적절한 애착이 형성되면 자녀의 다른 발달적 특성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상철 외, 1997). 따라서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애착은 아동기와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유아기,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애착 행위 그 자체보다는 애착 감정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이은경, 1995).

부모-자녀 애착은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부모와 강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시킨 아동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의 부모에게 좀 더 강한 심리 유대적 태도를 갖게 되며, 사랑, 존경, 애정과 같은 부모에 대한 심리적 유대로 인해 비행의 위험을 그만큼 예방할 수 있다. 즉 비행의 유혹이 생겼을 때 머릿속에 부모가 심리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유혹의 상황에서 부모의 반응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만큼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애착의 요인은 비행의 발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Hirshci, 1969).

4.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 사회, 문화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한 사회일지라도 계층, 관련분야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문화나 사회 내에서도 시대나 역사의 변천에 따라 아동양육방법에 대한 이해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치된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는 1990년에 이르러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

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에 대한 정의는 각 문화, 사회마다 다를 수밖에 없음을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다(Kinard, 1979). 비록 학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들 정의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아동에게 가한 성인의 다소 명백한 어떤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또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이 있고, 성인의 행위와 아동의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Hart·Germail·Brassard, 1983; Doyle, 1997).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Steele(1980)은 습관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자녀를 경멸 모독하며, 책임전가 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 비신체적 형태의 적대적·거부적 학대 형태로 정서적 학대를 정의하였다. Szur(1988)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일탈행위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정서적 학대로 정의했다. Garbarino·Guttman·Sdeeley(1986)는 정서적 학대를 여러 유형을 포함하는 심리적으로 해로운 행동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유형에는 거부, 고립화, 위협(공포감), 무시, 타락화 등이 포함된다. 거부는 성인이 아동의 가치나 욕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려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고립화는 아동의 정상적인 사회적 경험이나 교우 형성을 방해하고, 아동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위협은 아동이 세상은 변하기 쉽고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무시는 아동에게 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고, 아동에게 반응을 하지 않거나 정서적 성장과 지적인 발달을 막는 행위를 말한다. 타락화는 아동에게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일탈하게 하고 비정상적인 사회 경험을 하게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더해 Wiehe(1990)은 아동의 물건을 부수거나 애완동물을 괴롭히거나 없애버리는 것을 위의 기준에 추가했다.

Glaser(2002)는 정서적 학대를 신체적 접촉이나 아동에게 해를 끼치려는 동기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로운 상호작용 양상으로 특징 지워지는 양육자-아동의 관계로 정의하면서, 5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1) 정서적 비가

용성, 무책임함과 방임으로 주양육자가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약물 남용 등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아동의 정서적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거나 다른 적절한 대안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이다. 2) 아동에게 부정적인 귀인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아동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아동과 발달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비일관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발달적인 능력 이상을 아동에게 기대하는 것, 과잉보호하거나 학습과 탐색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 혼란스럽거나 외상적인 사건과 상호작용에 노출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4) 아동의 개별성과 심리적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선 부모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 아동의 현실과 부모의 신념이나 소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5)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촉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타락화를 포함한 잘못된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것, 적절한 인지적 자극이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방임이 포함된다.

Straus(1991)은 언어적 공격을 정서적 학대에 포함시켰다. 그는 언어적, 상징적 공격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의사소통 또는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을 말하는데 이런 의사소통은 능동적일수도 수동적일수도 있고, 언어적일수도 비언어적일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방임, 성 학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학대의 일부로서 나타나거나 다른 학대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정서적 학대 자체가 아이를 공격하는 유일한 형태로 상처를 입히는 말이나, 심한 무관심, 아이에게 충분히 심한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적대적 태도 등으로 작용될 수 있다.

미국 아동학대 전문가 협회(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Abuse of Children; APSAC, 1995)는 “심리적 학대란 아동이 자신이 가치가 없고, 결함이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쓸모없고, 위협에 처해있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양육자의 반복적인 행

동양상 또는 극단적인 사건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면서, 거절·위협·타락화·정서적 반응을 하지 않는것·고립화·정신적, 신체적, 의학적, 교육적 방임 등 심리적 학대의 여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Garbarino·Guttman·Seeley(1986)의 정의와 유사한 것으로 거절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적대적 거절을 뜻하며, 위협은 아동을 위협하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행동 또는 아동이나 아동이 좋아하는 대상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타락화는 아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흥미를 무시하거나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지 않거나 아동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고립화는 아동이 또래나 성인과 상호작용하거나 의사소통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신적, 신체적, 의학적, 교육적 방임은 아동의 욕구에 맞는 공급을 해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국내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성혜(1992)는 “아동을 정서적, 지적 불구로 만들고 아동의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입히며 가장 오래 지속되어 해악을 끼치는 주양육자의 고질적인 행동패턴”으로 정서적 학대를 정의하였다. 또한 모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자녀에 대한 경멸적, 거부적, 적대적, 위협적, 원망적 언어학대 영역, 구타는 아니지만 자녀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 행동 영역,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언사를 하는 부모의 감정적 태도 영역과 이상의 결과들로 인해 아동이 받게 되는 심리적 상처 영역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이론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아동을 거부하고, 고립화하며, 그로 인해 공포감을 심어주고 무시하며, 아동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양육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5. 경계선 성격장애

성격 특성이란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개인의 지각, 행동 및 사고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성격특성이 융통성이 없고 부적응 적이어서 기능적 손상이나 주관적 고통을 유발시킬 때 성격장애라 한다.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에 속하는 특정 병리를 기술하고자 경계선 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Stern, 1938)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된 여섯 가지 주요 개념화가 있었다(Zanarini·Frankenburg, 2007). 우선 Kernberg(1975)는 경계선이라는 용어를 성격 병리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 기술하였고, Gunderson은 그때까지 소개된 경계선 장애의 증상들을 모아 진단기준을 만들었으며 Spitzer(1981)가 DSM-III에 경계선 성격장애와 특수한 사고의 장애를 주 증상으로 하는 정신분열형장애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일시적인 정신증적 혹은 유사 정신증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경계선 성격장애를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장애로 여겼으며(Wender, 1977) 불쾌감과 정서적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동 스펙트럼 장애로 다루었고(Stone, 1980) 경계선 성격장애를 약물 사용 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식사 장애와 관련된 충동 스펙트럼 장애로 보는 의견(Links et al., 1999)과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포함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하여 외상 스펙트럼 장애로 보는 의견이 있었다(Herman·Van der Kolk, 1987). 그러나 그 이후 새로운 Diagnostic and statistical of Mental Disorders, 4판(DSM-IV, 1994)이 발표되면서 다축 진단체계로써 성격장애를 축2에 수록했으며 10가지의 성격장애로 나누었고 그 중 경계선 성격장애와 정신분열성장애들에 관한 진단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다. DSM-IV-TR(APA, 2000)에서도 DSM-IV와 같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의 변화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다양한 이질적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장애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증상으로 인해 경계선 성격장애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비록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이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이 장애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Lieb, et al., 2004).

첫째, 정서장애 영역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강렬한 불쾌감정을 경험할 뿐 아니라 때로 분노, 슬픔, 수치심, 공황, 공포, 만성적인 공허감, 외로움과 같은 혐오스러운 긴장 상태를 경험하며 매우 뚜렷한 기분 반응성으로 종종 대인관계에서 기분이 매우 빠르고 쉽게 변해 하루에도 수차례 불쾌한 상태와 즐거운 상태를 경험한다.

둘째, 인지장애 영역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다음 수준의 세 가지 인지 관련 증상을 가지고 있다. 1)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정신증에 해당하지 않는 과 평가된 사고이며, 2) 유사 정신증적 증상으로 일시적이고 제한되어 있으며 다소 현실에 근거한 망상과 환각이며, 3) 잘못된 신념에 의한 심한 정체감 혼란이다.

셋째, 충동성 영역으로 고의적으로 자기의 신체에 해를 가하기, 대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살 행동하기, 약물남용, 식사장애, 무분별한 낭비, 언어적 공격, 무모한 운전 등의 충동 행동을 포함한다.

넷째, 대인관계 영역으로 대인관계가 강렬하고 불안정하며 유기공포를 경험하고 혼자 남겨지는 것을 피하려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관계에 집착한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매우 정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므로 논쟁과 불화가 잦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하나의 독립된 진단영역의 질환으로 소개된 이후 (Spitzer, 1981)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으나 그 연구 대상은 주로 성인이었다. 이는 18세 전의 아동과 청소년은 성격의 응집성과 지속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성격 발달은 성인기까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성격장애가 발달장애 영역인 축2에 속해 안정적이고 고질적이어서 변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장애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로 12세부터 18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되며 그 사이의 안정적인 성격특성은 이후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J.L. Rapoport·D.R. ismond, 1990; L.J. siever·K. davis1991; P.H. Thomsen, 1996; Vijay et al., 2006). 최근 개정된 DSM-IV-TR(APA, 2000)에서도 최소 1년간(성인의 경우 적어도 2년) 부적응적인 양상이 만연되어 있으면 청소년에게 성격장애를 진단할 수 있게 했다(Becker et al., 2002; Sharp·Roemeron, 2007).

아동과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장애 유병률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보다 청소년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Sharp·Roemeron, 2007). 아동의 경계선 성격은 성인 경계선 성격과 구체적인 표현 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기저하는 특성과 경계선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위험요인은 경계선 성격을 지닌 성인의 것과 동일하다(Geiger·Crick, 2001; Guzder et al., 1999; Kernberg et al., 2000; Lodolph et al., 1990; Pinto et al., 1996; Westen et al., 1990).

6.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Onkvisit·Shaw(1994)는 자기개념이란 사회적 준거체계 안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갖는 아이디어나 감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Coopersmith는 자기개념을 자신의 중요성·유능성·성공과 영향력·자신의 가치 등에 대해서 형성하고 습관적으로 유지하는 자기평가로 정의하였고, Rogers는 자기개념이 자신의 성격, 능력에 대한 지각·어떤 경험에 대한 지각·긍정적, 부정적 가치를 띄고 있는 것으로서의 지각 등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하였다(권선희, 2004).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와 태도로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될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는다고 느끼는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뜻한다(김정규, 1998). 또한 권석만(2002)은 자기 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집약한 기억체계로서 자기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존감, 정서, 대인관계를 비롯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이 자기개념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으나 이들을 종합하여 정의해본다면 자기개념이란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즉 자신에 대한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각되는 자신이란 신체적 특징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지적인 지각 등이 포함된다. 즉 자신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생각, 감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타인개념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중요한 관계에 있는 타인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되며 실제 이들과의 대인관계 경험이 자기 및 타인 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은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형제, 친구, 선생님 등 중요한 타인들과의 접촉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성격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비교적 일생동안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인의 일상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석만·김지영, 2002).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개념 또는 타인개념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신 및 타인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높은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타인의 단점이나 결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충족시키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 반면 자기개념 또는 타인개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으며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가질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며 부정적 상태의 원인을 내적 또는 외적으로 귀인하게 되면 자기개념 또는 타인개념이 더욱 부정적이 되고 심리적 장

애가 나타날 수 있다(이훈진, 1997).

임상적 연구에서 심리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정신병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념과 타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Beck, 1976; Beck·Freeman, 1990; Kernberg, 1976; Klein, 1932). 이러한 대표적 주장의 하나가 대상관계이론인데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타자와의 관계가 핵심적인 영역이며 따라서 개인이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고 이러한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떤 내면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개인의 심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주장한다(권석만·김지영, 2002; Kernberg, 1976; Klein, 1932). 여기서 대상관계란 실제 사람이 기보다는 내면화된 표상으로서 개인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 지니고 있는 행동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은 대상(objects) 즉 자신을 비롯하여 어머니, 아버지, 친구 등 중요한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에 심리적 에너지를 투여한다는 Freud의 생각에 근원을 두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는 자기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개념 타인개념을 형성하게 되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적 장애의 위험성을 지닌다. 특히 인생초기의 애착이나 대상관계에서 불만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성장한 후에도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주장하고 있다(권석만·김지영, 2002; 재인용).

이상의 논의는 대상관계의 경험이 자기개념과 타인개념의 형성에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념과 아울러 타인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Kiesler, 1996)

7. 접촉경계 혼란

접촉(Contact)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가가서 닿음’, ‘서로 닿음’ 또는 ‘다른 사람과 교섭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전적 의미에서도 볼 수 있듯 접촉은 자아의 욕구나 만족이 동반된 행동이다. 자아가 어떠한 욕구가 생길 때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자아나 타인 또는 환경에 다가가서 접촉을 시도해 욕구를 해소하게 된다. 게슈탈트이론에서도 접촉은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정규, 1996).

접촉은 상호 교류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각각의 개체와 개체 사이의 상호 교류관계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개체가 서로 만나는 장소를 접촉경계(Contact-Boundaries)라고 한다. 여기서 경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는 개체와 개체를 분리시키지 않고 다만 개체의 한계를 정하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는다(Perls, 1976). 접촉경계는 개체와 개체(자기 자신, 대인관계, 환경)간의 경계를 유지해주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개체로부터 무언가를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반투과적인 세포막과 같은 것이다(김정규, 1996). 접촉경계에서는 개체의 욕구가 충족되는 목표물은 받아들이고 교류를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강한 배척 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접촉경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경직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심리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촉경계 혼란 행동을 하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최종기, 2005).

접촉경계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으로써 내사, 투사, 융합, 반전, 자의식, 편향, 연결성이 있다. 이를 토대로 접촉의 질을 분석하고 특정행동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어려움을 이해하고 치료적 방향을 수

립 및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김주희·이주희, 2008). 이 접촉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심리적 현상은 다음과 같다(김정규, 1996).

1) 내사

내사는 개체가 외부의 압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개체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행동방식이나 가치관을 말한다. 개체는 이러한 내사로 인해 고정된 행동패턴을 개발하고 습관적이고 자동화된 행동을 반복한다. 그렇게 되면 개체는 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내사된 것들의 명령에 따라 그것이 자기 자신인줄 잘못 알고 살아간다. 내사는 자신과 타인간의 경계를 흐리게 함으로써 접촉경계 혼란을 초래하여 결국 개체를 부적응 상태에 빠뜨린다.

2) 투사

투사는 흔히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자각하고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나타난다. 투사는 자신의 유기체 욕구를 자각하고 접촉하며 해소하는 과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접촉도 방해한다. 그것은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생각, 나의 욕구로 상대방을 지각하게 만듦으로써 타인들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

3) 융합

융합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차이점이 없다고 느끼도록

합의함으로써 발생하는 ‘접촉경계 혼란’이다(Perls et al., 1951). 융합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서로 간에 경계가 없이 마치 하나의 개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 그들은 이러한 관계를 깨뜨리려는 시도에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 따라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못한다. 융합관계는 흔히 공허감이나 고독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고 또한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즉, 그들은 자신의 개성과 주체성을 포기하고 타인과 합치는 것이 고독감과 공허감을 직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경계를 갖지 못할 때 개체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제대로 해소할 수가 없어 부적응을 발생시키게 된다.

4) 반전

반전은 개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혹은 타인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행동은 개체가 성장한 환경이 억압적이거나 비우호적이어서 자연스런 접촉행동을 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원래 개체의 욕구를 억압한 것은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개체 자신이 환경을 대신하여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게 된다. 이는 개체가 부모와 환경의 태도를 자신의 인격 속으로 내사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반전은 환경과 접촉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현상이므로 접촉경계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반전을 보이는 내담자는 흔히 타인과 함께 있을 때에도 혼자 속으로 내적 대화를 하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한다. 한편 반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며, 반전이 항상 병적인 것은 아니다. 즉, 상황에 따라 욕구의 직접적인 표출이 개체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 또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바, 개체가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건강한 심리작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만성화되고 무의식

적으로 되어, 개체의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될 때 병적이라고 한다(Perls et al., 1951).

5) 자의식

자의식이란 개체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러한 개체는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이룬 결과에 만족하며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데, 대신, 항상 관찰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타인과 접촉하지 못하며,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항상 자신을 병적으로 관찰하며 긴장상태에 살아간다(Clarkson, 1990). 자의식은 한편으로 자신의 자애적 욕구를 의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행동을 통해 표출하지 않고 제지함으로써 갈등상황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다. 즉, 자의식은 반전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개체가 자신의 주의를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나 혹은 분노를 느끼는 대상으로 향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향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과의 교류와 접촉을 방해하고, 또한 유기체의 자연스런 활동을 제지한다. 마침내 개체는 자기 내부에 갇히게 되어 접촉경계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6) 편향

편향은 개체가 흔히 환경과의 접촉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할 때,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환경과의 접촉을 피해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편향은 개체가 불안, 죄책, 갈등, 긴장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심리상태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적응기제의 하나로, 특히 불안의 방어가

주요 목적이다. 불안이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는 흥분, 또는 억제된 흥분 에너지이다. 편향은 불안을 막는 방법으로써 흥분 에너지 자체를 피해버리거나 둔화시키는 책략을 택하는 것이다. 개체가 편향을 사용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좌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현재 존재하는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편향이 습관적인 행동이 되면 개체는 타인이나 환경으로부터 고립되며, 삶의 활력과 생동력이 감소되어 무기력해지게 된다.

7) 연결성

이제까지 살펴본 각각의 접촉경계 혼란 장애들은 서로 기능적이고 과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제각기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접촉경계 혼란으로 말미암아 개체는 자기경계가 혼란되어 자기 자신과 환경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중간층에 머물면서 환상과 공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접촉경계 혼란을 극복함으로써 개체는 좀 더 유기체의 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환경과의 자연스런 접촉을 통하여 성장·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접촉경계 혼란이 부재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6개의 접촉경계 혼란으로 모든 정신병리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접촉경계 혼란의 반대 극에 있는 연결성을 추가하여 6개의 접촉경계 혼란과 연결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결성이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어린 시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연결성을 체험했느냐 하는 구성개념을 말한다.

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총 630명 이었다(비행 청소년 300명, 일반 청소년 330명). 비행 청소년의 표집은 지방에 위치한 2개 소년원 학교의 14세 이상 20세 미만 학생들로 하였다. 일반 청소년의 표집은 서울 및 지방에 위치한 2개 중·고등학교의 14세 이상 20세 미만 학생(중학생 180명, 고등학생 150명)들로 하였다.

표집대상 중에서 응답을 빠뜨린 문항이 많거나 응답의 성실성을 믿을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총 514명이다. 그중 비행 청소년이 209명(40.7%)이고 일반 청소년이 305명(59.3%)이다.

2. 측정도구

1)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일반 청소년용과 비행 청소년용으로 각각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양자 모두 청소년의 연령, 학년, 부모의 결혼 상태, 가구소득, 학교생활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비행 청소년용은 위의 질문 내용과 범행내용, 범행동기, 최초 입건 연령, 죄명 등의 질문내용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있다.

2) 부모 양육 행동 척도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질문

지로 43문항, 4점 척도, 8요인(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관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밀관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검사결과 부의 양육행동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0, 모의 양육행동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2였다.

3) 부모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부모와의 애착은 Armsden과 Greengerg(1987)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척도에 기초하여 Raja, McGee와 Stanton(1992)이 개정한 IPPA-개정본 (IPPA-R)을 번안한 것에서 부모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문항(부, 모 각각12문항씩), 4점 척도, 3요인(의사소통, 신뢰, 소외)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보고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결과 부 애착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6, 모 애착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4였다.

4)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 Trauma Questionnaire)

아동기 학대와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질문지로 점수에 합산되지 않는 타당도 척도 3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28문항, 5점 척도, 5요인(정서학대, 정서방임, 성 학대, 신체학대, 신체방임)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두 하위요인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결과 문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84였다.

5)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기 보고형 질문지인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orey, 1991)의 11개 임상척도 중 하나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특징과 관련된 24문항을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뿐 아니라 18세 미만의 고등학생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한국판 PAI(김영환 외, 2001)의 임상척도 중 경계선적 특징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이 매우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총 23문항, 4개요인(정서적 불안정, 정체성 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 손상)으로 구성되었다. 총점은 0- 6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검사결과 문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81이었다.

6) 자기·타인 개념 질문지(Self-Concept Scale·Other-Concept Scale)

자기 개념 질문지는 자기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이훈진(1997)이 개발한 척도로 30문항, 5점 척도, 6요인(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할 예정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검사결과 문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89였다.

타인 개념 질문지는 자기 개념 질문지(Self-Concept Scale)의 내용을 일반적인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이훈진(1997)이 개발하였다. 평정 대상이 자기 자신에서 타인으로 바뀌었을 뿐 문항의 질문 내용과 순서는 자기 개념 질문지와 동일하다. 자기 개념 질문지와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 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검사결과 문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83이었다.

7) 접촉경계진단 검사(Contact boundary scale)

접촉경계진단 검사는 Carraro(1989)의 개정된 GCSQ-R(Therevised gestalt Contact Boundary Styles)을 참고하여 김정규(2009)가 한국 문화에 맞게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서 기존 척도에 추가하여 접촉경계혼란의 반대극에 있는 ‘연결성’ 척도도 포함시켰다. 연결성 척도를 추가한 이론적 배경은 접촉경계혼란이 부재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6개의 접촉경계혼란으로 모든 정신병리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6개 척도가 모두 온전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접촉경계혼란의 반대극에 있는 연결성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연결성은 다른 접촉경계혼란 척도들과는 달리 그 의미가 선형적이라 해석하기에 편하다. 즉, 내사나 투사, 반전, 융합, 편향, 자의식 등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것의 의미가 각 척도마다 다르다. 가령, 자의식이나 편향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건강하다고 진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나, 내사나 반전의 경우 너무 낮은 것이 반드시 좋은지 의문이다. 그리고 내사나 융합 같은 경우 극단적이 아닌 경우 상당히 높은 점수의 경우라도 반드시 병리적이 아닐 수도 있다. 즉, 특별히 다른 행동상의 문제가 없다면 높은 내사나 융합은 우리 문화에서 적응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접촉경계혼란 척도들의 단독 상승 또는 하강만으로 맹목적 진단을 하는 것보다 연결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진단하는 것이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런 목적에서 연결성 척도는 변별진단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Polster, E., 2006).

검사 도구는 80문항, 6점 척도, 7요인으로 접촉경계 혼란 유형을 나타내는 내사, 투사, 융합, 반전, 자의식, 편향과 연결성이 포함되어 있다. 검사결과 문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87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5.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청소년 집단과 비행 청소년 집단 간에 부모 양육행동, 부모 애착,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개념, 타인개념, 접촉경계혼란 유형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 청소년 집단과 비행 청소년 집단을 적절하게 변별해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VI. 연구결과

1.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514명 중 비행 청소년 집단 209명(40.7%)과 일반 청소년 집단 305명(59.3%)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의 연령, 부모 결혼상태, 가구소득, 양육자 변경 경험, 결석일 수, 학교성적은 <표 1>과 같다.

비행 청소년의 연령은 14세 5.7%, 15세 12.9%, 16세 16.7%, 17세 29.7%, 18세 28.2%, 19세 6.7%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 상태는 이혼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33%, 별거 6.7%, 부/모의 사망 5.7%, 부/모의 가출 2.9%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 25.4%로 가장 높았으며, 200-300만원 미만 22.5%,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9.6%, 300-400만원 미만 14.8%, 100만원 미만 11.1%, 400만원 이상 6.7%로 나타났다. 양육자가 변경되었던 경험을 한 경우는 경험 없음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1번 25.8%, 2번 10%, 3번 3.3%, 4번 3.8%, 5번 이상 1.9%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년의 1년간 결석일 수는 15일 초과가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일 이하 12.9%, 없음 12.5%, 7일 이하 9.6%, 3일 이하 5.3%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당시 학교성적은 하 60.8%로 가장 높았으며, 중 34.4%, 상 4.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 연령은 14세 3.6%, 15세 54.1%, 16세 1.6%, 17세 21.6%, 18세 19%, 19세 0%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 상태는 일반이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이 12.5%, 부/모의 사망 2.7%, 별거 2.6%, 부/모의 가출 1%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 31.5%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 27.2%, 200-300만원 미만 17.4%, 300-400만원 미만 14.8%, 100만원 미만 11.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9%, 400만원 이상 0.3%로

나타났다. 양육자가 변경되었던 경험을 한 경우는 경험 없음이 93.3%로 가장 높았으며, 1번 13.1%, 3번 2%, 2번 1.6%, 4번· 5번 이상 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년의 1년간 결석일 수는 없음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일 이하 14.8%, 7일 이하 5.2%, 15일 이하 2.3%, 15일 초과 1%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 당시 학교성적은 중, 49.8%로 가장 높았으며, 상 33.4%, 하 16.7%순으로 나타났다.

< 표 1 >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빈도	%	빈도	%	
연 령	14세	12	5.7	11	3.6
	15세	27	12.9	165	54.1
	16세	35	16.7	5	1.6
	17세	62	29.7	66	21.6
	18세	59	28.2	58	19.0
	19세	14	6.7	0	0
	합계	209	100.0	305	100.0
부모의 결혼상태	일반	69	33.0	248	81.3
	별거	14	6.7	8	2.6
	이혼	108	51.7	38	12.5
	부/모의 가출	6	2.9	3	1.0
	부/모의 사망	12	5.7	8	2.7
	합계	209	100.0	305	100.0
월 수입	기초생활수급대상	41	19.6	27	8.9
	100만원 미만	23	11.1	83	27.2
	100-200만원미만	53	25.4	96	31.5
	200-300만원미만	47	22.5	53	17.4
	300-400만원미만	31	14.8	45	14.8
	400만원 이상	14	6.7	1	0.3
	합계	209	100.0	305	100.0

양육자 변경 경험	없음	115	55.0	254	83.3
	1번	54	25.8	40	13.1
	2번	21	10.0	5	1.6
	3번	7	3.3	6	2.0
	4번	8	3.8	0	0
	5번 이상	4	1.9	0	0
	합계	209	100.0	305	100.0
결석일 수	없음	26	12.5	234	76.7
	3일 이하	11	5.3	45	14.8
	7일 이하	20	9.6	16	5.2
	15일 이하	27	12.9	7	2.3
	15일 초과	125	59.8	3	1.0
	합계	209	100.0	305	100.0
학교 성적	상	10	4.8	102	33.4
	중	72	34.4	152	49.8
	하	127	60.8	51	16.7
	합계	209	100.0	305	100.0

비행 청소년집단에서 실시되었던 범죄 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범죄내용은 재산범죄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범죄 18.7%, 강력범죄 17.7%, 기타 16.3%, 약물범죄 1.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되는 범죄내용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보호과찰 위반 등이 있었다. 범행 계획여부는 우발적인 경우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계획적 24.4%, 치밀한 계획 4.8%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호기심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동기 29.2%, 격분 14.8%, 기타 10.5%, 스틸추구 4.3%, 정신·정서적 혼란 3.8%, 음주 2.9%, 성적 동기 1%, 특정집단 증오 0.5%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입건 연령은 14-16세가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13세 24.9%, 17-19세 16.2%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입건 범죄는 재산범죄가 63.2%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범죄 18.2%, 강력범죄 10%, 기타 8.2%, 약물범죄 0.5%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없는 경우 87.1%, 있는 경우 12.9%로 나타났다.

<표 2> 비행 청소년집단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
범죄내용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강간,성폭행)	37	
	폭력범죄(공갈,폭행,상해)	39	17.7
	재산범죄(절도,횡령,사기)	95	18.7
	약물범죄	4	45.5
	기타	34	1.9
	합계	209	16.3
			209
범행 계획여부	우발적	148	70.8
	어느 정도 계획적	51	24.4
	치밀한 계획	10	4.8
	합계	209	100.0
범행동기	호기심	66	31.6
	경제적 동기	61	29.2
	중독성(약물,도박 등)	3	1.4
	음주	6	2.9
	정신·정서적 혼란	8	3.8
	특정집단(종교 등)에 대한 증오	1	0.5
	스틸추구	9	4.3
	격분	31	14.8
	성적 동기	2	1.0
	기타	22	10.5

	합계	209	100.0
최초입건 당시 연령	9-13세	52	24.9
	14-16세	123	58.9
	17-19세	34	16.2
	합계	209	100.0
최초입건 당시 죄명	강력범(살인,강도,방화,강간,성폭행)	21	10.0
	폭력범(공갈,폭행,상해)	38	18.2
	재산범(절도,횡령,사기)	132	63.2
	약물범죄	1	0.5
	기타	17	8.2
	합계	209	100.0
정신과 치료 경험	없음	182	87.1
	있음	27	12.9
	합계	209	100.0

2.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변인에서 집단 간의 차이 분석

1)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 분석 결과

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부모 양육행동의 검증 결과 Wilks의 람다는 .65, 유의확률은 .000으로 두 집단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가설 1-1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과 하위영역별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해 보면 표 3과 같다.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부양육행동($F= 28.77,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육행동의 개별 분석은,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학대($F= 56.35,$

$p < .01$), 방치($F = 32.83, p < .01$), 애정($F = 15.85,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간섭의 경우 비행 청소년 집단의 평균($M = 10.52, 12.31, 9.20, 15.47$)이 일반 청소년의 평균($M = 9.88, 11.38, 8.54, 15.02$)보다 높았고, 과잉기대의 경우 일반 청소년집단의 평균($M = 14.38$)이 비행 청소년 집단의 평균($M = 14.17$)보다 높았으나 세 하위요인 모두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양육행동의 경우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모양육행동($F = 68.59,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양육행동의 개별 분석은,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감독($F = 34.71, p < .01$), 합리적 설명($F = 12.38, p < .01$), 비일관성($F = 15.72, p < .01$), 학대($F = 95.42, p < .01$), 방치($F = 75.64, p < .01$), 애정($F = 50.24,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잉기대와 간섭의 경우 비행 청소년의 평균($M = 14.29, 16.33$)보다 일반 청소년 집단의 평균($M = 14.78, 16.44$)이 더 높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3 > 집단 간 부모 양육행동 차이 분석 결과

구분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체		F
	M	SD	M	SD	M	SD	
감독	10.52	3.51	9.88	3.05	10.12	3.24	4.37
합리적 설명	12.31	4.20	11.38	3.73	11.73	3.93	6.17
부 비일관성	9.20	2.99	8.54	2.43	8.78	2.66	6.73
과잉기대	14.17	4.55	14.38	4.35	14.30	4.42	.26
간섭	15.47	4.86	15.02	4.16	15.19	4.43	1.12
학대	12.82	4.68	9.82	3.87	10.93	4.43	56.35**

	방치	10.73	3.97	8.82	3.18	9.53	3.61	32.83**
	애정	13.98	5.17	12.16	4.54	12.84	4.86	15.85**
	전체	99.20	16.35	90.00	18.81	93.42	18.46	28.77**
	감독	9.95	3.66	8.23	2.66	8.87	3.18	34.71**
	합리적 설명	11.79	4.49	10.51	3.34	10.99	3.86	12.38**
	비일관성	9.52	3.21	8.49	2.35	8.87	2.74	15.72**
	과잉기대	14.29	5.00	14.78	4.05	14.59	4.42	1.34
모	간섭	16.33	5.27	16.44	4.22	16.40	4.63	.07
	학대	12.75	5.28	9.01	3.01	10.40	4.39	95.42**
	방치	11.01	4.46	8.13	2.73	9.20	3.74	75.64**
	애정	13.78	5.38	10.87	3.51	11.95	4.52	50.24**
	전체	99.42	17.14	86.45	15.92	91.26	17.52	68.59**
부모 양육행동 평균		99.31	15.37	88.23	15.68	92.34	16.45	55.46**

** $p < .01$

2)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부모 애착 차이 분석 결과

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부모 애착 검증 결과 Wilks의 람다는 .88, 유의확률은 .000으로 두 집단 간 부모 각각의 애착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가설 1-1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부모 애착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해보면 표 4와 같다. 부모애착 평균은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부모애착평균($F=8.54$,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로 분석해보면,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부모애착($F=68.27$,

$p < .01$), 모애착($F = 53.56$,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집단 간 부모 애착 차이 분석 결과

구분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체		F
	M	SD	M	SD	M	SD	
부애착	29.63	14.08	37.54	7.07	34.39	11.13	68.27**
모애착	31.53	9.08	36.47	5.99	34.50	7.76	53.56**
부모애착평균	33.42	7.82	35.41	7.16	34.62	7.48	8.54**

** $p < .01$

3)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정서적 학대 차이 분석 결과

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부모 정서적 학대 검증 결과 Wilks의 람다는 .89, 유의확률은 .000으로 두 집단 간 정서적 학대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가설 1-1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정서적 학대 총점과 그 하위영역 별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해 보면 표 5와 같다.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정서적 학대 전체 점수($F = 55.57$,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로 분석해 보면,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정서적 학대($F = 60.37$, $p < .01$), 정서적 방임($F = 20.66$,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집단 간 정서적 학대 차이 분석 결과

구분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체		F
	M	SD	M	SD	M	SD	
정서적 학대	4.89	4.17	3.46	3.01	4.04	3.59	60.37**
정서적 방임	6.93	4.61	4.15	3.79	5.28	4.36	20.66**
전체	11.82	6.40	7.61	5.78	9.32	6.38	55.57**

** $p < .01$

4)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경계선 성격장애 차이 분석 결과

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경계선 성격장애 검증 결과 Wilks의 람다는 .80, 유의확률은 .000으로 두 집단 간 경계선 성격장애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가설 1-2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경계선 성격장애 총점과 그 하위영역별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해 보면 표 6과 같다.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경계선 성격장애 총점($F = 36.48,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별로 분석해 보면,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경계선 성격장애를 구성하고 있는 정서적 불안정($F = 38.21, p < .01$), 자기 상해($F = 97.10,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체감 문제의 경우 비행 청소년 집단의 평균($M = 8.12$)이 일반 청소년 집단의 평균($M = 7.58$)보다 더 높았고, 부정적 대인관계의 경우 비행 청소년 집단의 평균($M = 6.34$)보다 일반 청소년 집단의 평균($M = 6.36$)이 더 높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6 > 집단 간 경계선 성격장애 차이 분석 결과

구분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체		F
	M	SD	M	SD	M	SD	
정서적 불안정	7.74	3.63	5.92	3.00	6.66	3.39	38.21**
정체감 문제	8.12	3.13	7.58	3.06	7.80	3.10	3.74
부정적 대인관계	6.34	2.28	6.36	1.88	6.35	2.05	.01
자기상해	7.34	3.11	4.83	2.64	5.85	3.10	97.10**
전체	29.56	10.0	24.69	8.22	26.67	9.30	36.48**

** $p < .01$

5)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자기개념 차이 분석 결과

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자기개념 검증 결과 Wilks의 랏다는 .82, 유의확률은 .000으로 두 집단 자기개념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가설 1-3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자기개념 총점과 그 하위영역별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해 보면 표 7과 같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별로 분석해 보면,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자기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적($F = 7.22, p < .01$), 도덕적($F = 35.94, p < .01$), 성격적($F = 10.28, p < .01$), 가정적($F = 52.40, p < .01$), 사회적($F = 4.00, p < .01$), 능력적 자기개념($F = 4.95,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 집단 간 자기개념 차이 분석 결과

구분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체		F
	M	SD	M	SD	M	SD	
신체적 자기개념	16.82	3.79	16.00	3.20	16.33	3.47	7.22**
도덕적 자기개념	15.08	3.73	17.04	3.60	16.24	3.77	35.94**
성격적 자기개념	16.18	3.60	17.19	3.45	16.78	3.54	10.28**
가정적 자기개념	17.33	4.32	20.10	4.24	18.97	4.48	52.40**
사회적 자기개념	16.84	3.91	17.53	3.78	17.25	3.85	4.00
능력적 자기개념	16.36	3.59	17.09	3.72	16.79	3.68	4.95
전체	98.60	16.25	104.94	15.45	102.37	16.07	20.03**

** $p < .01$

6)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타인개념 차이 분석 결과

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타인개념 검증 결과 Wilks의 람다는 .87, 유의확률은 .000으로 두 집단 타인개념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가설 1-3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타인개념 총점과 그 하위영역별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해 보면 표 8과 같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별로 분석해 보면,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타인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도덕적($F = 8.58, p < .01$), 가정적($F = 43.06, p < .01$), 사회적($F = 18.71, p < .01$), 능력적 타인개념($F = 19.08, p < .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타인개념의 경우 비행 청소년집단의 평균($M = 16.04$)보다 일반 청소년집단의 평

균(M=16.33)이 더 높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8> 집단 간 타인개념 차이 분석 결과

구분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체		F
	M	SD	M	SD	M	SD	
신체적 타인개념	16.04	2.61	16.33	2.36	16.21	2.47	1.70
도덕적 타인개념	15.40	3.08	14.55	3.31	14.90	3.25	8.58**
성격적 타인개념	15.76	2.65	16.32	2.56	16.09	2.61	5.93
가정적 타인개념	16.08	2.83	17.83	3.05	17.12	3.08	43.06**
사회적 타인개념	15.84	2.87	16.96	2.89	16.51	2.93	18.71**
능력적 타인개념	15.87	2.83	17.00	2.92	16.54	2.93	19.08**
전체	95.00	11.03	99.00	11.80	97.37	11.67	15.05**

** $p < .01$

7)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접촉경계 혼란 유형 차이 분석 결과

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 접촉경계 혼란 유형 검증 결과 Wilks의 람다는 .87, 유의확률은 .000으로 두 집단 접촉경계 혼란 유형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가설 1-3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접촉경계 혼란 유형 전체 점수와 그 하위영역별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해 보면 표 9와 같다. 접촉경계 혼란 총점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집단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별로 분석해 보면, F검정에서 집단에 따라 접촉경계 혼란 유

형을 구성하고 있는 내사(F= 22.82, $p<.01$), 투사(F= 9.11, $p<.01$), 연결성(F= 8.71,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융합의 경우 일반 청소년집단(M= 37.38)이 비행 청소년집단의 평균(M= 36.33)보다 더 높았고, 반전 및 편향의 경우 비행 청소년집단의 평균(M= 35.22, 32.18)이 일반 청소년집단의 평균(M=33.66, 31.42)보다 더 높았으며, 자의식의 경우 일반 청소년집단(M= 32.82)이 비행 청소년집단의 평균(M= 31.90) 보다 더 높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9> 집단 간 접촉경계 혼란 유형 차이 분석 결과

구분	비행 청소년		일반 청소년		전체		F
	M	SD	M	SD	M	SD	
내사	41.82	8.85	45.20	7.14	43.83	8.05	22.82**
투사	32.90	9.34	30.63	7.66	31.56	8.45	9.11**
융합	36.33	7.53	37.38	6.59	36.95	7.00	2.76
반전	35.22	7.95	33.66	7.61	34.29	7.78	5.03
편향	32.18	8.30	31.42	6.94	31.73	7.52	1.26
자의식	31.90	10.25	32.82	8.24	32.45	9.11	1.27
연결성	70.63	15.09	74.87	16.58	73.15	16.11	8.71**
전체	281.00	41.33	285.98	32.66	238.95	36.48	2.33

** $p<.01$

3.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변인에 의한 판별분석

부모 양육행동, 부모애착,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개념, 타인개

념, 접촉경계 혼란 유형의 하위요인에 따라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유의미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단계적 판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접촉경계 혼란 유형의 경우 다른 척도들과는 달리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을 선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어 접촉경계 혼란의 총점이 아닌 하위요인을 변인으로 하였으며, MANOVA 분석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내사, 투사, 연결성을 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단계적 판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양육행동, 부모 애착, 자기개념, 타인개념, 접촉경계 혼란의 내사, 투사, 연결성의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인이 판별식에 투입되었으며,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의 순으로 투입되었다. 도출된 판별 함수의 고유값은 .150이고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는 함수 1은 전체변량의 100%를 설명하고 있으며, 판별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ilk's Lamda값은 .870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0> 부모 양육행동, 부모애착,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개념, 타인개념, 접촉경계 혼란 유형에 의한 판별 분석 결과

독립변인	Wilk's Lamda(P)	n ²	판별함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
			함수 1
정서적 학대	.936**	.064	.907
경계선 성격장애	.890**	.110	.678
고유값			.150
설명분산			100.0

Rc(Rc ²)	.361(.130)
Wilk's Lamda(P)	.870**

** $p < .01$

표 10을 보면, 독립변수의 수가 추가됨에 따라 Wilks의 Lamda의 값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판별의 기능이 더욱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 요인이 집단을 판별하는 데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경계선 성격장애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두 집단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에 따른 결과에 의하면 판별함수에 의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집단으로 변별하는 집단의 전체적인 분류 정확도는 67.7%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보면, 비행 청소년의 경우 전체 209명 중 66%인 138명이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의 경우 전체 305명 중 68.9%인 210명이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학대와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특성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집단을 분류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판별분석 분류 결과

실제집단	예측된 집단		사례수
	비행 청소년집단	일반 청소년집단	
비행 청소년집단	138(66.0%)	71(34.0%)	209
일반 청소년집단	95(31.1%)	210(68.9%)	305
분류 정확률	67.7%		

VI.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 집단과 일반청소년 집단을 잘 변별해주는 변인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개념, 타인개념, 접촉경계 혼란에 있어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을 적절하게 변별해주는 변인을 찾기 위해 판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그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밝혀진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개념, 타인개념, 접촉경계 혼란에서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접촉경계 혼란을 제외한 부모 양육행동, 부모애착,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개념, 타인개념의 총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부모 양육행동 총점 및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 모두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 각각의 하위요인에서도 부양육행동의 경우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를 제외한 영역에서, 모양육행동의 경우 과잉기대, 간섭을 제외한 영역에서 비행 청소년 집단이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대부분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진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비행의 형성요인이라는 가설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김민정, 1997; 남영옥, 1998, 2001; 조선정, 2000; 한상우 외, 1998; Bornstein O'neill, 1992; Mahler et al., 1975; Masterson, 1989). 또한 부/모 양육태도 모두에서 비행 청소년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학대 및 방치가 비행과 공격성에 대한 결정적인 위험인자라는 Cicchetti·Toch(1995)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를 보였다.

부모 애착의 경우, 부/모 애착 모두 일반 청소년 집단이 비행 청소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 경향성이 낮다는 연구와 일치하며(노성호, 2005; 부선희, 1999)부모와의 애착이 비행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을 지지한다(김효수, 2009; 백혜정·황혜정, 2005). 또한 Hirshci(1969)의 주장과 같이, 부모-자녀 애착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도 부모에게 강한 심리 유대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비행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서적 학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비행 청소년 집단의 결과는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만큼 단기적·장기적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며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장기적으로 심리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들을 지지한다(김정희, 2003; 윤진영, 2003; 장사경, 2008; 정솔이, 2006, 조주연, 2004).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청소년 비행과 깊은 관련이 있고, 경계선 성격장애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남영옥(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하위요인에서는 정체감 문제 및 부정적 대인관계를 제외한 정서적 불안정 및 자기상해에서 비행청소년 집단의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경계선 성격양상을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하위요인이 자기상해와 정서적 불안정성이며, 이 두 요인만으로도 경계선 성격장애 점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박지선(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서가 높아지고, 정서는 충동조절을 부족하게 하여 자기상해 행동을 야기하며, 이러한 부정적 성격장애 성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대부분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구창모, 1991; 권석만, 2002; 김유자 외, 2000; 심응철 외, 1986). 즉 비행청소년 집단이 일반청소년 집단보다 더욱 부정적인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청소년은 자아증진의 대안적인 행동양식으로써 비행행동에 보다 쉽게 개입하게 된다는 추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Kaplan, 1980). 부정적인 타인개념 또한 타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 상태의 원인을 외적으로 귀인하게 되어 공격성의 표출 및 비행행동을 하기 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접촉경계 혼란 유형의 하위요인에서 비행청소년 집단은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투사가 높고 내사 및 연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경계 혼란 유형 중 투사가 청소년의 외적·내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한연희, 2009). 즉,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그 책임소재를 타인에게 돌리는 투사의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체화, 우울증, 강박증, 분열증 등의 내현적 문제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격적인 행동, 과잉행동 등의 외현적 문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비행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낮은 연결성은 어린 시절 가족과의 단절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성의 부재가 부정적인 심리적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Polster(2006)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내사의 경우 상당히 높은 점수의 경우라도 반드시 병리적이 아니며, 다른 행동상의 문제가 없다면 우리 문화에서 적응적일 수 있다는 김정규(1995)의 주장에 따라 일반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높은 내사는 긍정적인 심리적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개념, 타인개념, 접촉경계 혼란의 하위요인이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효과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에

의해 잘 변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가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Cicchetti et al(1992)의 연구결과 정서적 학대 및 방치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우울증 뿐 아니라 비행과 공격성에 대한 결정적인 위험인자로 여겼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정서적 학대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심리적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더 이상 정서적 학대가 연구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정서적 학대의 폭넓은 연구를 위한 개념의 정확한 정의와 신뢰로운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변별하는 또다른 판별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청소년 비행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고,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점수가 클수록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남영옥(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타나낸다. 따라서 성인의 경계선 성격과 구체적인 표현양상과는 다른 비행 청소년의 그것을 파악하여 치료 및 예방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서론에서 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비행은 단일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며, 판별분석 결과와 같이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가 함께 고려될 때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결정짓는 데 높은 변별력 및 67.7%라는 분류 예측력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았다.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가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판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비행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임상 및 상담현장에서 청소년 비행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어느 부분에 먼저 개입하여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데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 변인을 부모 양육행동, 부모 애착, 정서적 학대,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타인 개념, 접촉경계 혼란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판별에 유효한 여타의 변인들이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 측정법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측정도구 중 특히, 부모 양육행동질문지는 실제 어린 시절에 부모가 보인 양육 행동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제안(김상선 등, 2007; 남영옥, 2001)이 있다. 부모에 대한 표상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써의 부모 양육행동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보고와 같은 추가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비행 청소년의 경우 표집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 대상을 남학생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으로 제한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연구자에 따라 각 변인들에 대한 검사의 측정 요인과 방법이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검사만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금주·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 29-43.
- 곽선영 (2005). 비행청소년의 재범위험성차이에 관한 연구: 비행촉발요인조사와 PAI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소현 (200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문제군과 일반군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창모 (1991). 체육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백서*.
- 권석만·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705-726.
- 권선희 (2004). 부모-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초등학생의 자기개념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식·이현철 (2008)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사적 가치 기대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8, 1-27.
- 김동민 (2003).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민·박현지·김지훈 (2005). 청소년 정신병질특성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157-176.
- 김미인·장영애 (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

- 참여도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18, 379.
- 김민동 (2003).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199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순 (2002). 경계선 성격특성과 계슈탈트 접촉경계혼란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선·신민섭 ·이훈진 (2007).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자기 및 타인 표상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703.
- 김선미 (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 (1981).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외 (2001), 성격평가 질문지 실시요강. 학지사.
- 김영환·홍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259-271.
- 김유자·백용매 (2000).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우울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3, 139-160.
- 김윤숙 (2005). 학술발표 :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초기 부모 애착과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62.
- 김윤희 (2007). 가정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 (1991).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연구 : 인천시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규 (1998). 자기심리학과 계슈탈트 심리치료의 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

상, 17, 17-38.

- 김정규 (1995). *계슈탈트 심리치료*. 학지사.
- 김정규 (2003). 비파사나 명상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합한 불안장애의 계슈탈트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475-503
- 김정택 (1994). *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2003). *청소년기 피학대 경험과 비행에 관한 연구 : 자기통제력과 분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환 (1993). *절충주의적 통전치료가 경계선 증후군 치료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희·이주희 (2008). 접촉경계 혼란, 대인관계 특성과 군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 749-766.
- 김준호·노성. (1989). 사회계층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刑事政策*, 197-237.
- 김준호 (1995). 여자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 153-177
- 김중술·이명원·신민섭 (2003). 자기개념 위협이 편집성향자의 주의 및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71-91
- 김현수·김현실 (1997). 한국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 Journal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8, 57.
- 김현수·민병근·김현실 (1992). 청소년비행과 성격양상 및 가족역동간의 관계. *울산의대학술지*, 1, 188-205
- 김효수 (2009). 비공식낙인,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매개효과의 검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 (1998).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생존전략적 가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영옥 (2001).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특성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 59.
- 남영옥 (2001). 연구논문 :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2), 143.
- 노성호 (2005). 청소년의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83-605
- 노성호, 이성식 (2003). 청소년의 폭력범죄피해요인에 관한 일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1, 27-52.
- 노성호 (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 151-165.
- 박성연·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학가정학회지, 28, 141-156.
- 박성자 (1999). 가출청소년의 MMPI 특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정갑순 (2004). 한국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37-59
- 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6).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 비교 :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45-76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도·최현경·장우성·조동환·김정기 (2001). 불량행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병리. 한국심리학

- 회지 임상, 12, 147-162.
- 박지선·천성문. (2007). 청소년 애착의 국내 연구동향과 과제. 인문학논총, 12, 79.
- 박지선 (2009).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청소년의 정서조절결함 모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미·서수균·이훈진 (2007).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717-730.
- 백혜정·황혜정 (2005).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보고서, 1-71
- 변보기·강석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 269-291
- 부선희(1999). 애착,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비행경향성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석·조주연·이영식 (1999). 이차성징 발현시기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불안, 우울성향. 대한정신의학, 38, 211-218
- 서지현 (2005).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부모애착과 반사회성 및 공감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현 (2006).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부모애착과 반사회성 및 공감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말숙 (1988). 문제행동 청소년 가족과 일반가족간의 가족역동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병호 (2005).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 183-228.
- 송호창·오윤자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청소년의 비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 151.
- 신지원 (1997).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 공격성향 및 도덕적 판단능력과

- 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가해경험, 가해, 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3-149
- 심응철 (1989).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의 측정. 대학생활연구, 7, 189-209
- 심혜숙·김명권 (1999). 청소년 성격유형과 비행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 6, 51-6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안권순 (200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행 경험 및 관련 요인 비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은주·류인균 (2000). 경계선 성격장애의 생물 유전적 기질, 현상적 성격 및 방어기제적 특성과 정신병리와의 연관성 연구. 정신병리학, 9, 3.
- 양종국·김충기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1-121
- 엄명용 (2000).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청소년비행 예측 요인의 발굴. 한국사회복지학, 42, 254-289
- 엄미경 (2003). 중학생의 자기개념, 자의식, 자기효능감과 대인불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태호·김정규 (1991).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성격유형: 소년원의 절도범과 폭력범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8, 193-222
- 오명지 (2006).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현·조유진 (2009). 상담군과 비상상담군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나타난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양가성 및 의사소통유형, 양육행동의 차이. 아동학회지, 30, 195.
- 옥정·오윤희·정현옥 (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

- 소중인 비행집단 , 위험집단 ,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259.
- 원호택·이민규 (1990). 범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기본방향. 형사정책연구, 1, 63-91
- 유혜경 (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홍준·정은경 (1999). 학교생활 요인과 학교청소년 비행. 사회과학, 38, 123-150
- 윤진영 (2003). 아동기 학대경험과 보호요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2, 1.
- 이경남 (2004). 초기청소년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12, 43-54
- 이경상·이순래·박철현·김현희 (2005).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2, 1-88
- 이경숙·엄혜련·정영운 (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 (AAI)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511.
- 이동수 (1995). 청소년기 경계선 장애의 치료. 소아·청소년정신의학, 6, 43-46.
- 이상균 (2008).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조기, 후기비행 진입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4, 249.
- 이상현 (1996). 범죄가능성의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5, 163-188

- 이상현 (2004). *소년 비행학*. 제2판: 박영사
- 이석형 (2006).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정·이혜선 (2006). 비행청소년의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1-18
- 이승민 (2006). 만다라를 이용한 미술치료가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자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대구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1995).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1993). 청소년기 모-자녀간의 애착이 자녀의 사회성과 학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공수자·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123-145
- 이인혜·유희정 (1987). 정신분열증과 비행집단간의 성격차이: P와 E차원의 연결. *한국심리학회지*, 6, 98-101
- 이창수 (1998).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아동교육*, 7, 202-217.
- 이춘근 (2005). 가정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애착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욱 (1998). 아동기 경계선 성격 장애의 진단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7, 35-52.
- 이혜원 (1992). 비행청소년의 성격과 부모의 양육태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은희·남현주 (2008). 연구논문 :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 23.
- 임종렬·김순천(1996). 대상분열에 의한 자기도취적 자기학대: 가출청소년의 심리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0, 199-226
- 장동산·이길홍·민병근 (1985). 한국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성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앙대지, 10, 405-422
- 장사경 (2008). 아동학대의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현·김남재 (2008). 부적응 도식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學生生活研究, 24, 1-26.
- 정소희 (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0, 185.
-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
- 정술이 (2006). 아동기에 정서학대를 경험한 자녀의 분노에 대한 고찰.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제연·장경준 (1995). 청소년기의 경계선 인격장애. 소아·청소년정신의학, 6, 34-42.
- 정주향 (1993). 境界線性格 非行青少年에 대한 家族治療 事例 研究.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광환 (1997). 학교에서의 낙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승가대학, 4, 233-258
- 조선정 (2000). 비행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200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775.

- 조주연 (2004).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진·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 55-72
- 진혜경·김경빈·이종일 (1998). 청소년 품행장애와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 67-81
- 차타순 (2001).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민·한성희(1997). 품행장애 청소년에서의 우울, 불안증상과 부모양육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 83-91
- 최광현·심응철(1986).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연구. *행동과학연구*, 8, 275-282
- 최윤경 (2009). 경계선 성격장애의 하위유형에 따른 아동기 성 피해 경험과 충동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 639.
- 최종기 (2005). 접촉경계혼란이 경계선 성격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복 (2003). 청소년의 가정환경인식과 비행성향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비교.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 (200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상담연구*, 12, 42-5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한국의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 한상우·안정희·한선호 (199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정신병리 연구. *순천향의대 논문집*, 3, 613-625
- 한상우·오창근·한선호 (1998). 재학생과 재소중인 비행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과 부모양육태도. *신경정신의학*, 37, 962-971

- 한상철 (1997). *청소년 심리학*. 양서원.
- 한수정·김중술·신민섭·권석만 (2002). 성인기 애착 양식원형과 내적 작동모델 요소간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93-124
- 한연희 (2009).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접촉경계혼란과 문제해결 양식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2, 170-189
- 홍강의·전성일·신민섭. (1995). 청소년 경계선 상태의 임상적 분류. *소아청소년정신의학 = Journal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6, 18.
- Agrawal, H., Gunderson, J., Holmes, B. & Lyons-Ruth, K. (1999) Attachment studies with borderline patients; A review.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2, 94.
- Alessi, N. (2001). Juvenile offenders and affective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46.
- Allen, J. P., Moore, C. M. Kuppenmainc, G. P., & Bell, K. L.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1406-1419.
- Ara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eck, A. T. (1976). *Cognitive F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Freeman, A., & Associates.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 Guilford Press.
- Becker, D. F., Grilo, C. M. Edell, W. S., & McGlashan, T. H. (2002). Diagnostic Efficienc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in Hospitalized Adolescents: Comparison with Hospitalized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9, 2042-2047.
- Borstein, R. F & O'Neill. R. M.(1992). Parental Perception ack Psychopathology, *Journal of Nervious Mental Disorder*, 180
- Borum, R. (2000). "Assessing Violence Risk among You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268-1288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 Bradley, S. J. (1979). The relationship of early maternal separation to borderline personal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pilot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424.
- Cashdan, s. (1988). *Object Relations Therap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Chanen, A.·Jackson, H.·McCutcheon, L.·Jovev, M.·Dudgeon, P.&Yuen, H., et al. (2009). Early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Quasi-experimental comparison with

- treatment as usu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3, 397.
- Cicchetti, D., & Barnett, D. (1992). Attachment Organization in Maltreatment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3-397-411
- Cicchetti, D., & Toth, S. L.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 Clarkson, P. (1990). *Gestalt Counselling in Action*. London: Sase Pub.
- Conger, R. D., Ge, X., Elder, G.H., & Lorenz, F, O.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 Doyle C. (1997). Emotional abuse of children: Issues for intervention. *Child Abuse Review*, 6, 330-342.
- Dulz, B. (1997). Differentiation and therapy of delinquent behavior in borderline disorders: psychodynamic approach. *Nervenarzt*, 68, 395.
-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M.L.(1983). Court records, undetected Delinquency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Criminal Law*, 54.
- Eysenck H. J., & Eysenck SBG(1975). *The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London. Routledge & Eegan Paul
- Foggit, R. (1974). *Personality and Delinquency*. London University.
- Furham, A. (1996). The Big Five Versus the Big four: The rdlationship

- between Myer-Briggs Types Indicator and NEO-PI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92, 303-307
- Garbarino, J., Guttman, E. & Seeley, J. W.(1986). *The Psychologically Battered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 Geiger, T., & Crick, N. R. (2001).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vulnerability to personality Disorders: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Risk across the Lifespan*. New York. Guilford Press.
- Glaser. D.(2002).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 conceptual framework. *Child Abuse and Neglect*, 26, 697-714.
- Griffin, B. S & Griffin, D. T.(1978). *Juvenile Delinquency in Perspective*, New Yor. Harper & Row.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31-250
- Gunderson, J. G., & Kolb, J. E. (1978). Discriminating features of borderline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 792-796.
- Guzder, J., Paris, F., Zelkowitz, P., & Feldman, R. (1999). Psychological risk factors for borderline pathology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Academy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38, 206-212.
- Hart, S. N., Germail, R. B. & Brassard, M. R. (Eds) (1983). Proceedings summary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sychological abuse of children and youth. *Office for The Study of the Psychological Rights of the Child*, Indiana university.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 Press.
-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Kaplan, S. J., Pelcovitz, D. & Labtuna, V.(1999).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neglect research: A review of the past 11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1214-1222.
- Kaplan, S. L., Hong, G. K., & Weinhold, D. C (1984). Epidemiolog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8, 633-653.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7-29.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ernberg, O. F. (197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New York. Jason Aronson.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 Kinard, E. M. (1979).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abuse for the Chi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 82-100.
- Klein, M. (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New York. Grove Press.
- Levitsky, A., &Perls, F. (1970). *The rules and games of Gestalt Therapy*. In J. Fagan & I. Shepherd(Eds.), *Gestalt Therapy Now*, 140-149, New York: Harper & Row(Colophon).

- Lieb K., Zanarini, M. C., Schmahl, Linehan, M.M., & Bohus.(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Lancet*, 364, 453-461.
- Lobos-Wild, R. (1993). Delinquency as an expression of narcissism and
borderline disorder: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therapeutic
elements. *Psyche*, 47, 82.
- Ludolph, P. S., Westen, D., Mislis, B., Jacson, A., Wixom, J., & Wiss, F.
C. (1990). The borderline diagnosis in adolescen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470-476.
- Mahler, M. S., Pine F.,&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 Basic Books.
- Main, M., & Goldwyn, R. (1984). Predicting of Her own experience. *Child
Abuse and Neglect*, 8, 203-217 .
- Masterson, J. F. (1989). Prologue : Evolution, In J. F. Masterson & R.
Klen (Eds), *Psychotherapy of The Disorders of The Self : The
masterson approach*, New York : Brunner/Mazel.
- Mcloyd. V. C & Wilson. L. (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 Children in Poverty ;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McManus,M.·Brickman,A.·Alessi,N.E.&Grapentine, W. L.(2003). Borderline
personality in serious delinquents. *Comprehensive Psychiatry*, 25,
446.
- medinnus, G. R. (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Michel, W.(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New York: Willey.
- Miller,A.·Muehlenkamp,J.&Jacobson,C. (2008). Fact or fiction: Diagnosing

-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adolescen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969.*
- Miller, A., Neft, D., & Golombek, N. (2008).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adolescence.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6, 85.*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Novotny, E. S., & Burstein M. (1974): Public school adjustment of delinquent boys after release from a juvenile corrective institution. *J Youth Adolesce, 3, 49-60.*
- Paris, J. (2007). The natur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ultiple dimensions multiple symptoms, but one categor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1, 457-473.*
- Paris, J. (1997). Antisocial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Two separate diagnoses or two aspects of the same psychopathology? *Comprehensive Psychiatry, 38, 237-242.*
- Perls, F. S. (1976). *The Gestalt Approach & Eyewitness to Therapy*. New York: Bantam Books.
- Perls, F. S., Hefferline, R. E., & Goodman, P. (1951). *Gestalt Therapy. Excitement and Growth and the Human Personality*. New York: Delta.
- Perls, F., Hefferline, R., & Goodman, P. (1951). *Gestalt Therapy: Excitement and Growth in the Human Personality*. New York. Dell
- Perris, C., Qrrondell, W. A & Cisemann, M. (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England: John Willy & Sons Ltd. 3-26
- Pinto, A., Grapentine, L., Francis, G., & Picariello, C. M. (1996).

-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adolescents: Affective and cognitive features. *Journal of Academy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35, 1338–1343.
- Polster, E.(2006). *Uncommon Ground*. Zeig, Tucker & Theisen, Inc. *Questionnaire*, San Piego: EDITS (1975).
- Ramos,V.·Leal,I.&Maroco,J. (2009).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adolescents personality traits in the adolescents and in the parents. *European Psychiatry*, S1084. 03–85.
- Rapopot, J. L., & D. R. Ismond. (1990). *DSM-III-R Training Geuide for Diagnosis of Childhood Disorder*. New York, Bruner/Mazel.
- Rey, Joseph M., Plapp, jon M. & Stewart, Gavin W. (1990). Reliability of psychiatric diagnosis in regerred aAdolescents. *Psyc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39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stein, D. S., & Horowits,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44–253
- Sharp,C.·Romero,C. (2007).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comparison between children and adult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71, 85.
- Siegel, L. J., Welsh, B. C., & Senna, J. J. (2006).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9th Edition. Thomson Press.
- Siever, L.J., &K. Davis. (1991). A psychobiological perspective on the personaluty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647–1658
- Stern, A. (1938). Psychoanalytic investigation of and therapy in the

- borderline group of neuroses. *Psychoanalytic Quarterly*, 7, 467-489.
- Straus, M. A. (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 223-238.
- Szur, R. (1988).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P. Mather(ed). *Child Abuse Oxford Blackwell*, 104-126.
- Taylor, J., James, L., Reeves, M., & Kistner, J. (2009).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re associated with poor clinical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delinquent boy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1, 94.
- Thompson, A. E., & Kaplan, C. A. (1996). Childhood emotional abus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143-148.
- Vijay, N. R., Langley, J., & Links, P. S. (2006). Adolescent personality disorders in adolescent medicine. *Adolescent Medicine Clinics*, 17, 115-130.
- Wasserman, G. A., Miller, L. S., Pinner, E. & Jaranillo, B. (1996). Parenting predictors of early conduct problems in urban, High-Risk Boy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 1227-1236.
- Westen, D., Ludolph, P., Block, M. J., Wixom, J., & Wiss, F. C. (1990). Developmental history and object relations in psychiatrically disturbed adolescent girl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061-1068.
- Wiehe, V. R. (1990). *Sibling Abuse: Hidden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Trauma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Zanarini, M. C., & Frankenberg, F. R. (2007). Pathways to the

developmental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1, 93-104.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ABSTRACT

A study on family environment,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s of juvenile delinquency

Seo, Mi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f help to prevent and intervene in juvenile delinquents through analyze the discriminative variables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non-juvenile delinquents and find the influential variables among them. The subjects were 209 juvenile delinquents in the province and 305 non-juvenile delinquents students recruit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province. Total data collected were 580 copy, but 514 copy only used for analyzation without 66 copy that are faithless respo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15.0 Statistic Program: reliability, MANOVA and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juvenile delinquent group perceived that their parents's parenting behaviors were more negative than the non-juvenile delinquent

group. Second, the juvenile delinquent group got significantly lower marks in parent attachment than non-juvenile delinquent group. Third, the juvenile delinquent group got significantly higher marks in emotional abuse than non-juvenile delinquent group. Fourth, the juvenile delinquent group had higher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significantly than non-juvenile delinquent group. Fifth, the juvenile delinquent group got lower marks in self-concept and other-concept than non-juvenile delinquent group. six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juvenile delinquent and non-juvenile delinquent group in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type. seventh, the emotional abuse, borderline personality were important characteristic in order as discriminating variables for the juvenile delinquent and non-juvenile delinquent group.

keyword : juvenile delinquents, family environments, personalit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부 록

- 부록 I.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 부록 II. 부모 양육행동 질문지
- 부록 III. 부모 애착 질문지
- 부록 IV. 정서적 학대 질문지
- 부록 V. 경계선 성격장애 질문지
- 부록 VI. 자기개념 질문지
- 부록 VIII. 타인개념 질문지
- 부록 IX. 접촉경계진단검사

[부록Ⅱ] 부모 양육행동 척도

▣ 다음 문항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했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부모님의 행동에 대해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답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왼쪽에, 아버지는 오른쪽에 구분하여 각각 그 정도에 따라 V표 해 주십시오.

어머니				문 항	아버지			
전혀 아니 다	대개 아니 다	대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아니다	대개 아니 다	대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2	3	4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셨다.	1	2	3	4
1	2	3	4	2.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었다.	1	2	3	4
1	2	3	4	3.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4.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하셨다.	1	2	3	4
1	2	3	4	5.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1	2	3	4
1	2	3	4	6.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	1	2	3	4
1	2	3	4	7.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로 벌을 주셨다.	1	2	3	4
1	2	3	4	8. 나보다는 바깥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1	2	3	4
1	2	3	4	9.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1	2	3	4
1	2	3	4	10.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안치셨다.	1	2	3	4
1	2	3	4	11.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12.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셨다.	1	2	3	4
1	2	3	4	13.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1	2	3	4

1	2	3	4	14.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 거워하셨다.	1	2	3	4
1	2	3	4	15. 내가 잘못하면 때부터 드셨다.	1	2	3	4
1	2	3	4	16.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 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었다.	1	2	3	4
1	2	3	4	17. 내가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 내는지 알고 계셨다.	1	2	3	4
1	2	3	4	18.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 셨다.	1	2	3	4
1	2	3	4	19. 칭찬이나 별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있었다.	1	2	3	4
1	2	3	4	20. 내가 알아서 할 개인적인 일 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하셨다.	1	2	3	4
1	2	3	4	21. 나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	2	3	4
1	2	3	4	22.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1	2	3	4
1	2	3	4	23. 작은 잘못에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1	2	3	4
1	2	3	4	24.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 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다.	1	2	3	4
1	2	3	4	25.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 올지 알고 계셨다.	1	2	3	4
1	2	3	4	26. 손님이 오거나 외출을 했을 때, 나에 대한 태도가 평소와 달 라지셨다.	1	2	3	4
1	2	3	4	27.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 를 설명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28.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 실 때가 많았다.	1	2	3	4
1	2	3	4	29.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 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러웠다.	1	2	3	4
1	2	3	4	30.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31. 화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심하게 때리셨다.	1	2	3	4
1	2	3	4	32.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으셨다.	1	2	3	4
1	2	3	4	33.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셨다.	1	2	3	4
1	2	3	4	34.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1	2	3	4
1	2	3	4	35.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나 있었다.	1	2	3	4
1	2	3	4	36.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1	2	3	4
1	2	3	4	37. 너무 걱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었다.	1	2	3	4
1	2	3	4	38.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다.	1	2	3	4
1	2	3	4	39.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1	2	3	4
1	2	3	4	40.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셨다.	1	2	3	4
1	2	3	4	41.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셨다.	1	2	3	4
1	2	3	4	42.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43. 나에 대해 덜 걱정하셨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1	2	3	4

[부록Ⅲ] 부모 애착 질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아버지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잘 나타내 주는 칸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아버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아버지께 나의 문제나 힘든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2. 아버지는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3. 만약 아버지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아버지는 나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신다.	1	2	3	4
4.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주신다.	1	2	3	4
6.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7. 다른 분이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1	2	3	4
8. 아버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1	2	3	4
9. 나는 아버지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	2	3	4
10.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쉽게 화가 난다.	1	2	3	4
11. 나의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거나 바보같다고 생각된다.	1	2	3	4
12. 나는 아버지한테 분노를 느낀다.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아버지에게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잘 나타내 주는 칸에 V표를 해주십시오.

2. 어머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힘든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2. 어머니는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3. 만약 어머니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어머니는 나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신다.	1	2	3	4
4.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준다.	1	2	3	4
6.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7. 다른 분이 나의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1	2	3	4
8.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	1	2	3	4
9. 나는 어머니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	2	3	4
10.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쉽게 화가 난다.	1	2	3	4
11. 나의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거나 바보같다고 생각된다.	1	2	3	4
12. 나는 어머니한테 분노를 느낀다.	1	2	3	4

[부록Ⅳ] 정서적 학대 질문지

▣ 다음은 현재까지 여러분과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여러분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었 다	드물 게 있었 다	가끔 있었 다	자주 있었 다
1.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똥뽕이, 멍청이)	0	1	2	3
2.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0	1	2	3
3. 나에게 “너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0	1	2	3
4.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5.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6.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0	1	2	3
7.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0	1	2	3
8. 우리 가족들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0	1	2	3
9. 나는 가족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0	1	2	3
10.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0	1	2	3

[부록 V]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 각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즉시 떠오르는 대로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 체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나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 나의 몸은 연약한 편이다.	1	2	3	4	5
3. 나의 용모는 매력 있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몸의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5. 나에게서는 성적 매력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 나는 대개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나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강한 도덕적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나쁜 사람이다.	1	2	3	4	5
10.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1	2	3	4	5
11. 나는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나는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3. 나는 남의 미움을 받을 만한 성격의 소유자다.	1	2	3	4	5
14.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잘 가누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다.	1	2	3	4	5
16.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1	2	3	4	5
18. 나는 집안 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	1	2	3	4	5
19. 나는 지금껏 가족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서 살아왔다.	1	2	3	4	5

20. 우리 식구들은 나를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고 있다.	1	2	3	4	5
2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22. 나는 누구하고든 쉽게 친해질 수 있다.	1	2	3	4	5
23. 사교적인 면에서 볼 때 나에게는 좋은 점이랄곤 없다.	1	2	3	4	5
24. 이만하면 나도 비사교적인 편은 아니다.	1	2	3	4	5
25.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근한 느낌을 준다.	1	2	3	4	5
26. 나는 어떤 일이든 잘 헤낼 수 있다.	1	2	3	4	5
27.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28.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1	2	3	4	5
29. 나는 다방면에 능력이 있다.	1	2	3	4	5
30. 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부록Ⅵ] 자기 개념 질문지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문장을 읽고 그 내용이 평소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나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 나의 몸은 연약한 편이다.	1	2	3	4	5
3. 나의 용모는 매력 있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몸의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5. 나에게서는 성적 매력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 나는 대개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나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강한 도덕적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나쁜 사람이다.	1	2	3	4	5
10.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1	2	3	4	5
11. 나는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나는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3. 나는 남의 미움을 받을 만한 성격의 소유자다.	1	2	3	4	5
14.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잘 가누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다.	1	2	3	4	5
16.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1	2	3	4	5
18. 나는 집안 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	1	2	3	4	5
19. 나는 지금껏 가족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	1	2	3	4	5

기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서 살아왔다.					
20. 우리 식구들은 나를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고 있다.	1	2	3	4	5
2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22. 나는 누구하고든 쉽게 친해질 수 있다.	1	2	3	4	5
23. 사교적인 면에서 볼 때 나에게는 좋은 점이랄곤 없다.	1	2	3	4	5
24. 이만하면 나도 비사교적인 편은 아니다.	1	2	3	4	5
25.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근한 느낌을 준다.	1	2	3	4	5
26. 나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5
27.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28.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1	2	3	4	5
29. 나는 다방면에 능력이 있다.	1	2	3	4	5
30. 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부록Ⅶ] 타인 개념 질문지

▣ 다음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측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항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항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제외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 사람들은 대개 몸이 연약한 편이다.	1	2	3	4	5
3. 사람들은 대개 매력 있는 용모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사람들은 대개 몸의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5. 사람들은 대개 성적 매력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 사람들은 대개 바른 일을 한다.	1	2	3	4	5
7.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8. 사람들은 대개 강한 도덕적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9. 사람들은 대개 나쁘다.	1	2	3	4	5
10. 사람들은 대개 정직하다.	1	2	3	4	5
11. 사람들은 대개 성격에 문제가 있다.	1	2	3	4	5
12. 사람들은 대개 모난 성격을 갖는다.	1	2	3	4	5
13. 사람들은 대개 남의 미움을 받을 만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1	2	3	4	5
14.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가누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5. 사람들은 대개 명랑하고 쾌활하다.	1	2	3	4	5
16. 사람들은 대개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1	2	3	4	5
17. 사람들은 대개 자기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18. 사람들은 대개 집 식구들과 잘 지낸다.	1	2	3	4	5
19. 사람들은 대개 가족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을 것이다.	1	2	3	4	5
20. 사람들은 대개 자기 식구들로부터 별로 신통치 않게 여겨지고 있을 것이다.	1	2	3	4	5
21.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22. 사람들은 대개 누구하고든 쉽게 친해진다.	1	2	3	4	5
23. 사교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라곤 없다.	1	2	3	4	5
24. 사람들은 대개 비사교적인 편은 아니다.	1	2	3	4	5
25.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에게 친근한 느낌을 준다.	1	2	3	4	5
26. 사람들은 대개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5
27. 사람들은 대체로 능력이 있다.	1	2	3	4	5
28. 사람들은 대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1	2	3	4	5
29. 사람들은 대개 다방면에 능력이 있다.	1	2	3	4	5
30. 사람들은 때로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부록Ⅷ] 접촉경계진단 검사

▣ 이 질문지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을 나타낸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 숫자에 즉시 떠오르는 대로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 렇 지 않다	조 금 그 렇 지 않다	조 금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착하게 살아야 한다.	1	2	3	4	5	6
2.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1	2	3	4	5	6
3. 나는 학창 시절에 아주 밀착된 친구가 있었다.	1	2	3	4	5	6
4.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5	6
5. 기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6
6.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1	2	3	4	5	6
7. 어릴 때 어머니에게 내 속이야기를 다 했었다.	1	2	3	4	5	6
8. 지금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걱정하고 도와줄 친구가 있다.	1	2	3	4	5	6
9.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1	2	3	4	5	6
10.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다.	1	2	3	4	5	6
11. 가까운 사람이라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12. 평소에 늘 몸이 긴장되어 있다.	1	2	3	4	5	6
13. 칭찬을 들으면 당황해서 얼른 딴 주제로 돌려버린다.	1	2	3	4	5	6
14. 완벽하게 준비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6

15. 어릴 때 아버지에게 내 속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다.	1	2	3	4	5	6
16. 만일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혼자 해결해야 할 것이다.	1	2	3	4	5	6
17.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18. 사람들이 정말 나를 안다면 나에게서 떠나 갈 것이다.	1	2	3	4	5	6
19. 가까운 사람의 청은 거절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6
20. 나도 모르게 자주 긴장하면서 숨을 멈춘다.	1	2	3	4	5	6
21. 불편한 상황이 되면 웃음으로 그 순간을 피해버린다.	1	2	3	4	5	6
22.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다.	1	2	3	4	5	6
23. 어릴 때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었다.	1	2	3	4	5	6
24. 내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어 나는 외롭지 않다.	1	2	3	4	5	6
25.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26. 불편한 감정을 내보인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끝날 것이다.	1	2	3	4	5	6
27.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28. 나중에 당황하게 될까봐 하지 못하는 행동이 많다.	1	2	3	4	5	6
29.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그냥 피해버린다.	1	2	3	4	5	6
30.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잘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1	2	3	4	5	6
31. 어릴 때 내 속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주변에 있었다.	1	2	3	4	5	6
32.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할 수 있다.	1	2	3	4	5	6

33.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34. 내 자랑을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1	2	3	4	5	6
35. 혼자 있는 것은 내버려진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36. 나는 항상 생각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6
37. 자주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	1	2	3	4	5	6
38.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온전히 만족스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1	2	3	4	5	6
39. 지금까지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의논할 친구가 항상 있었다.	1	2	3	4	5	6
40.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1	2	3	4	5	6
41. 남에게 욕들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6
42. 내가 나선다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1	2	3	4	5	6
43. 홀로 서는 것이 두렵다.	1	2	3	4	5	6
44. 나는 종종 죄책감이 들거나 짜증이 난다.	1	2	3	4	5	6
45. 무슨 일이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싫다.	1	2	3	4	5	6
46.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두렵다.	1	2	3	4	5	6
47. 어릴 때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았다.	1	2	3	4	5	6
48.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1	2	3	4	5	6
49.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1	2	3	4	5	6
50.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이다.	1	2	3	4	5	6

51.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52.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날 챙겨줄 사람이 없다.	1	2	3	4	5	6
53. 대화를 할 때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화제를 돌려버린다.	1	2	3	4	5	6
54.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6
55. 어릴 때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께 야단맞을까봐 말하지 않았다.	1	2	3	4	5	6
56. 항상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6
57. 맡은 책임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1	2	3	4	5	6
58. 도움요청을 한다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1	2	3	4	5	6
59.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다.	1	2	3	4	5	6
60. 내 자신을 비난, 자책할 때가 많다.	1	2	3	4	5	6
61.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1	2	3	4	5	6
62. 어떤 일을 할 때 온전히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몰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6
63. 나의 부모님은 어릴 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	1	2	3	4	5	6
64.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6
65.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2	3	4	5	6
66.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것이다.	1	2	3	4	5	6
67. 나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다.	1	2	3	4	5	6
68. 다른 사람과 있으면서도 혼자 속	1	2	3	4	5	6

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다.						
69. 할 일이 있는데도, TV를 보거나 편전을 피운다.	1	2	3	4	5	6
70. 나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의식 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1	2	3	4	5	6
71.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부모님께 의논했다.	1	2	3	4	5	6
72. 주변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 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1	2	3	4	5	6
73.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74.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 지 않을 것 같다.	1	2	3	4	5	6
75.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드리지 못 한 것 같아 죄송하다.	1	2	3	4	5	6
76. 나는 열등감이 있다.	1	2	3	4	5	6
77. 내 몸의 느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1	2	3	4	5	6
78.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당 황해서 불안해진다.	1	2	3	4	5	6
79.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 항상 가 족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1	2	3	4	5	6
80. 사람들을 믿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